

Vol.240 2017. 11월호

조선대학교 소식



조선대학교

본 게시물은 다운로드 후 모든 사이트에 파일 업로드를 금합니다.



건학이념

조선대학교는 부강한 국가건설과 세계인류 공영을 위해 봉사하는 영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 개성교육 : 창조적 정신으로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인재를 기른다.
- 생산교육 : 교육의 장과 사회를 연결하는 생산교육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봉사하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 영재교육 : 폭넓은 장학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영재를 육성한다.

교육목적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이념과 본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한 학술연구와 교수 및 사회봉사를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개성을 중시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
- 국제적 식견을 겸비한 전문인재 양성
-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회지도자 양성
-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인재 양성



4	특집
	개교 71주년 기념식
10	핫뉴스
	조선대학교 홍보대사 임명
	영호남 4개 대학 총장협의회 개최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방문
	2015 광주U대회 유공자 표창
	2017 공학인증평가 '인증' 획득
	치매국책연구단 미국컨소시엄과 치매예측기술 공동 연구개발 합의
	중앙일보 대학평가 우수
	언어교육원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브릿지 인재양성사업단 '교육기부 교육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글로벌산학협력연구센터 '2017 할랄 교육과정지원사업' 선정
20	사람들
24	클릭캠퍼스
32	중앙도서관
36	잘가르치는 대학 ACE+사업
40	연구야 놀자 LINC+사업단
41	교류협력
44	입시정보
	조선대학교 2018학년도 정시모집
51	2017학년도 1학기 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52	열린대학 언어교육원
54	학생공동구역
57	잡아라 잡(job) 대학일자리센터
61	신간소개
62	병원 소식
71	치과병원 소식
80	CU Again 7만 2천 발전기금



조선대학교 개교 71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조선대학교는 9월 29일 오전 10시30분에 해오름관 1층 대강당에서 개교 7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강동완 총장을 비롯한 박주선 국회의원,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성환 동구청장, 이주현 총동창회장, 김신영 총학생회장, 전병로 원로동문(1회 졸업생) 등 내외 귀빈과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교기념식은 △학교 연혁 낭독 △조선대학설립동지회 입회권유문 낭독 △서재홍 전 총장 청조근정훈장 수여 △백악학술상·백악산학협력상·장기근속자·공로상·모범상 등 포상 △감사패 증정 △강동완 총장 기념사 △이주현 총동창회장 축사 △박주선 국회의원 축사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축사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축가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동완 총장은 기념사에서 “위대한 설립역사와 지역민들의 무한한 사랑의 토대 위에서 조선대학교 총장 취임 후 지난 1년 구성원들의 뜨거운 노력과 성원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1,400억원에 달하는 국책사업 및 연구사업의 성과 △치매관련 연구 등 대학의 위상 강화 △대학의 내실성과 국제화 확충 △CU Again 7만 2천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과 소통과 발전의 계기 등 지역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건학 100년을 위해 설립이념 구현과 대학 특성화를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 건학 100년을 위한 우리의 과제

존경하는 강현욱 이사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조선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가 오늘로서 개교 71주년을 맞았습니다.

1946년 부강한 국가건설과 세계인류공영을 위해 봉사하는 영재를 양성한다는 뚜렷한 민족적 자각 속에서 태동된 조선대학교는 개성교육과 생산교육, 영재교육의 건학이념 아래 수많은 동량을 배출하여 왔으며, 오늘날 이들의 눈부신 활약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400여명의 조선대학교 교직원들은 17개 단과대학, 80개 학과, 2만 여명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의를 다해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조선대학교 제16대 총장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영어의 앞 글자를 따 D·E·S·I·G·N(데이터, 위임/책임, 서비스, 통찰, 국제화, 네트워크) 경영철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선대학교 건학 100년을 준비하면서 그간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 시민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들어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위대한 대학(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누구나 오고 싶은, 교육·연구·봉사·행정·학습이 즐거운 아시아 최고의 Great Chosun, Human University)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3가지 과제로서 인문정신과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도입, 교육-연구-행정 시스템의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수평적 네트워크로의 전환, 구성원이 소통과 화합하는 興·情·協 신뢰 공동체의 구축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의 바탕에는 대학 공동체의 3개 축, 즉 교수, 학생, 직원 각각의 본연의 기능회복을 위한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진력했던 조선대학교의 자긍심 회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원 덕분에 이루어 낸 것입니다.

첫째, 국책사업 및 연구사업 진흥에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223억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70억원), 평생교육제 대학지원사업(20억원), 전국 최초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298억원)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유치하였고, 그 밖에 정부와 기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과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총 1,400여 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연구비를 수주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4차 산업형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을 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IBM 의료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하여 지역의 최첨단 의료기반 확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조선대학교의 긍정적인 활동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 우리 대학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선도연구대학으로 국비 2,635억이 투입되고 있는 치매관련 연구 성과는 동아일보 기사(1·2면 Top)를 통해 ‘한국인 뇌지도 완성 치매예측 쉬워진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고, 중앙의 방송사들에서도 전국방송으로 수차례 다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말 광주시민과 UN합창단이 함께 공연하면서 세계평화비전을 선포한 행사는 전국적으로 소개되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셋째, 대학의 내실성을 인정받았고 국제화의 확충을 이루었습니다.

2주기 대학기관인증평가에서 광주·전남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대학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대학특성화사업의 3차년도 연차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과 진로교육 우수사례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실시하여 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500명을 넘어섰으며,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에 진입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과 본격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이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포럼’은 지역 시민과 구성원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시민과 18개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한 제15회 장미축제는 조선대학교가 시민과 도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Cu Again 7만 2천 프로젝트에는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시민과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여 현재 약 35억 원의 발전기금 유치라는 성과 외에 진정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조선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이러한 가시적인 외적 성과에 더하여, 저는 이제 건학 100년을 위한 우리 대학의 내적인 변화를 2030발전 전략으로 준비해 왔으며 이를 실행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가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또 대학의 미래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이 일에는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 지혜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우리 대학도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검토와 새로운 전략 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년 3월에 예정된 전국의 대학이 사활을 걸고 있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은 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에는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 대학의 소중한 구성원들이며 이들 모두를 낙오 없이 훌륭한 사회의 인재로 키워 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사회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대학 설립이념의 구현과 대학 특성화를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모델을 정립해야하는 과제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학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조선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저와 대학집행부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대학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건학 100년을 기약하기 위한 우리대학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학문단위와 행정단위의 변화를 포함하는 2030 대학발전 종합계획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더욱 확장하고 구성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 우리 대학의 발전전략을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3기 법인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대학집행부는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학의 역사를 볼 때 우리 구성원들이 학교를 위하는 마음으로 뜻과 힘을 모은다면 이 난국을 쉽게 극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선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우리는 호남 민중의 염원이 담긴 위대한 조선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학다운 대학의 학풍과 대학에 대한 구성원의 자부심을 고려할 때 극복해야 할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대학이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모두 새로운 100년의 조선대학교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학교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총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구성원 모두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지역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조선대학교 제16대 총장 강 동 완

30년 근속포상 수상자

김철성 (의학과)	배학연 (의학과)
장숙진 (의학과)	정 혁 (의학과)
이재영 (철학과)	정채영 (컴퓨터통계학과)
김경희 (기초과학대학)	김관섭 (인문과학대학)
김성배 (공과대학)	김영범 (체육대학)
김정남 (치과대학)	김철홍 (자산관리팀)
민현기 (시설·안전관리팀)	박준영 (총무팀)
옹후철 (치과대학)	윤순정 (취업경력개발팀)
이경노 (의과대학)	정관옥 (총무팀)
정홍규 (자산관리팀)	조삼래 (생활관운영팀)
채미화 (생활관운영팀)	최정석 (총무팀)
한중국 (시설·안전관리팀)	

20년 근속포상 수상자

안태훈 (의학과)	김병록 (법학과)
김익모 (미술학과)	권광호 (의과대학)
최민호 (정보개발팀)	최원천 (정보개발팀)

백악상 수상자

백악학술상 수상자



윤일홍 조홍현

학자적 덕망이 있고, 연구와 저술 및 창작활동 등의 업적이 탁월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한 교수에게 수여되는 백악학술상은 윤일홍 교수(경찰행정학과)와 조홍현 교수(기계공학)가 받았다.

백악산학협력상



고연숙 박윤경

산학협력분야의 우수교원에게 수여되는 백악산학협력상에는 고연숙 교수(영어영문학과)와 박윤경 교수(의생명과학)가 수상했다.

공로상 수상자

이사장상

신용진 (물리학과)	조송식 (미술학과)
정수만 (의과대학)	김영관 (조선대학교 병원)
강명철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김상수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총장 공로상

임병성 (생활관운영팀)	유수자 (학술정보지원팀)
--------------	---------------

총장 모범상

고현해 (정보개발팀)	박지현 (보건팀)
안현철 (경상대학)	정인선 (사회과학대학)
채수학 (재무팀)	

발전기금 기탁자 감사패 수여자

강광민 (희망의빛 대표)
고성중
공난주 (전 교직원)
공병탁 (㈜라인건설 총괄사장)
기아자동차광주공장
김선아 (조선대학교 교수)
김시용 (미앤사랑피부과 원장)
김영후 (㈜씨크릿우먼 대표이사)
김재철 (동원육영재단 이사장)
김정수 (김정수피부과 원장)
나용근 (㈜은혜기업 대표이사)
남도문화재단
동아리 파인 (조선대학교)
민성환 (네취코리아(주) 대표)
민영돈 (조선대학교 교수)
박근호 (전주고려병원 원장)
박만규 (화이트피부과 원장)
박철홍 (골드클래스(주) 회장)
박홍표 (세종J피부과의원 원장)
소금영 (조선대학교 교수)
심형섭 (법무법인승지 대표)
염홍섭 (㈜서산 회장)
오금열 (㈜디아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윤갑근 (조선대학교 교수)
윤병돈 (㈜인바이어플렉스 사장)
이건호 (조선대학교 교수)
이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기상 (㈜대호전기 회장)
이상홍 (조선대학교병원 병원장)
이성신 (남해가든 대표)
이용익 (㈜신흥 대표)
이은수 (㈜낙원이엔지 대표)
이종범 (조선대학교 교수)
임동윤 (조선대학교 교수)
장진영 (㈜디딤건축사사무소 대표)
장호직 (무등산의료재단, 무등산생태요양병원 이사장)
전익천 (조선대학교 교수)
정 영 (조선대학교 교수)
정영태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동창회 (조선대학교 동문)
주식회사광주시민프로축구단
차용훈 (조선대학교 교수)
허 준 ((유)대명 대표)

(이상 43명)

조선대학교 홍보대사 임명

“조선대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얼굴로 활동”



9월 13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대학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학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동할 제20기 홍보대사 임명식을 개최했다.

제20기 홍보대사는 조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지원서를 접수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1차로 합격자를 선발하였고,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테스트를 거쳐 17명이 지난 7월에 최종 선정되었다. 홍보대사는 내외빈 방문시 캠퍼스투어 가이드, 각종 교내행사 지원, 홍보 이미지 모델, SNS 등 기타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게 되며, 홍보대사 장학금을 받게 된다.

조선대학교 20기 홍보대사로 선정된 17명은 임명장 수여식을 기점으로 대내외적 홍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 제20기 홍보대사 명단



이대건
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 3



정유정
경상대학
경영학부 2



이채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2



이승희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2



윤지현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2



김동한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 1



서남기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1



안해람
체육대학
체육학과 1



최명준
공과대학
광기술공학과 1



박채리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



윤은애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1



이은빈
외국어대학
러시아어학과 1



김혜원
외국어대학
중국어문화학과 1



안하선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1



김주연
외국어대학
영어과 1



한지은
경상대학
경영학부 1



레 푸영안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3



제15회 영호남 4개 대학 총장협의회 개최



12

조선대(강동완 총장), 동아대(한석정 총장), 영남대(서길수 총장), 원광대(김도종 총장) 등 영호남 4개 대학 총장협의회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동안 조선대학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주요 일정으로는 교육부 정책 및 사립대학 현안 문제 등의 논의와 담양의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길 방문 등 문화 탐방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 변경 등 5가지 사항을 교육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책무성을 1단계 평가에서 2단계 평가지표로 환원할 것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전담 조직인 사업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평가요소에 포함할 것 △전임교원확보율 71.2%에서 68.5%로 환원할 것, 또한, 2018년도 교육부 예산 중 국립대 39개 대학 전체에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 '등록금 자율인상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국가장학금Ⅱ연계, 목적별 과제평가 시의 규제 등을 모두 철폐하여 법적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조선대학교 방문

강동완 총장과 면담 및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방송 인터뷰 진행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28일 오후 3시 30분 조선대학교를 방문해 강동완 총장과 총장실에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첨단 무인화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아울러 청년 실업과 관련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공감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강동완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하고, 특히 대학의 취업률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 기준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자리 자체도 재택근무나 온라인 잡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등장함에 따라 평가기준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용섭 부위원장은 강동완 총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중앙도서관 1층에 있는 대학일자리센터를 방문해 모 방송 프로그램(KCTV광주방송 기죽지마! 청춘노트) 인터뷰 촬영을 진행했다.

인터뷰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대 대학일자리센터 홍보대사인 김민수(전자공학과), 이윤지(상담심리학과) 학생들과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선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등을 비롯해 기존의 정부와 이번 정부의 일자리에 대한 철학이나 목표 등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지역 젊은이들의 강점과 뛰어난 점, 반면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였으며,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에 변화가 온다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 광주 U대회 유공자 표창, 6명 수상



김철주



조수형



박찬국



유재식



김동우



안기선

조선대학교 교수 및 직원, 학생 6명은 세계적인 저비용 고효율 시민주도 성공대회로 평가된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성공을 주도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에서 국무총리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철주(체육학과) 교수, 조수형(의학과) 교수, 박찬국(의학과) 교수 등 3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유재식(치위학과) 교수, 김동우(미대 교학팀) 팀장, 안기선(에너지자원공학과 4년) 학생 등 3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5 광주U대회는 지난 2015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12일간, 광주와 전남·북, 충북 충주 일원에서 전 세계 140개국 만 7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국내외로부터 친환경, 저비용, 고효율, 시민주도 등의 여러 면에서 성공적인 국제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공과대학 및 IT융합대학

20개 학과 공학 심화프로그램 모두 2017 공학인증평가 ‘인증’ 획득

조선대학교는 공과대학 17개 학부 및 IT융합대학 3개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20개 심화 프로그램이 2017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에 인증 받은 대상 학과(부)는 공과대학의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응용화학소재공학과 △광기술공학과 △금속재료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산업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등 17개 학과(부)와 IT융합대학의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계측로봇공학과 등 3개 학과이다.

공학인증제도는 공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통해 해당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 산업체의 요구와 글로벌 국제표준을 만족하는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2017년 현재 85개 대학에서 541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 미국 컨소시엄과 치매예측기술 공동 연구개발 합의

혈액 한방울로 가능한 유전자검사를 통한 치매예측기술 개발 기대



15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4년여 연구 끝에 고령 한국인 표준뇌지도 작성을 완성했고 이를 토대로 치매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내년 초 상용화를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들어 혈액 한 방울로 치매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임상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美알츠하이머병 유전학 컨소시엄(ADGC: Alzheimer's Disease Genetics Consortium)이 보유하고 있는 3만 여명의 알츠하이머병 관련 세계최대 규모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본 연구단이 개발한 치매예측기술의 타당도를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이 그동안 구축한 알츠하이머병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토대로 개발된 유전자변이 분석기술에 대해 미국 ADGC 측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원활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ADGC 연구책임자 중 한명인 린지패럴(Lindsay Farrer) 보스턴 의대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

린지패럴교수는 알츠하이머병 유전학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로 현재 보스턴대학 의과대학 의생명유전학과 석좌교수겸 학과장을 맡고 있으며 네이처지 네이처메디신, 네이처제네틱스 등 관련 분야 최고 학술지에 4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지원(145억원)과 광주시비, 조선대 교비 등이 투입된 결과이다. 국제특허 출원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 위해 논문투고를 준비 중이다.

2017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인당 국내논문(편)’ 전국 1위 건축공학분야는 종합평가에서 중상위 기록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가 2017년 중앙일보 전국대학 종합평가에서 중상위를 기록했다. 중앙일보는 전국 70개 4년제 대학의 이공계 5개 학과를 대상으로 국제학술지 논문 실적,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취업률 등 10개 지표, 2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9월 7일 발표했다. 학과별로 총점 기준 상위 10%는 최상, 25%까지는 상, 50% 이내는 중상으로 분류된다.

조선대학교 건축공학분야가 호남지역 사립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중상위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구 분야에서 ‘교수 1인당 국제논문(편)’은 8위, 국제논문당 피인용(회) 7위, 교내 1인당 교내연구비(원) 7위 등 전국대학 순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문·사회계열학과 평가에서는 조선대학교 경제학과가 ‘교수 1인당 국내논문(편)’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 건축공학과

종합평가

2017 중앙일보 대학평가 학과평가

최상

고려대(안암), 서울대, 연세대(서울), 충남대

상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송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서울), 한양대(ERICA)

중상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서울), 세종대, 전남대, 제주대, 조선대,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경제학과 연구부문

교수 1인당 국제논문(편)

1	건국대(서울)	3.04
2	성균관대(글로벌경제학과)	2.37
3	성균관대(경제학과)	2.28
4	고려대(서울)	1.65
5	서울대	1.49
6	연세대(서울)	1.36
8	경희대	1.32
8	중앙대	1.11
9	원광대	1.00
10	서강대	0.95

국제논문당 피인용(회)

1	단국대	5.00
2	중앙대	4.94
3	계명대	2.06
4	건국대(서울)	1.85
5	국민대	1.80
6	고려대(서울)	1.65
7	부산대	1.50
7	전북대	
9	인하대	1.30
10	서울대	1.24

교수 1인당 국내논문(편)

1	조선대	1.69
2	부산대	1.58
3	단국대	1.41
4	전북대	1.39
5	강원대(지역경제학과)	1.38
6	부경대	1.36
6	홍익대	
8	부산외대	1.25
9	선문대	1.21
10	가천대	1.17

국내논문당 피인용(회)

1	강원대(경제학전공)	3.03
2	원광대	2.52
3	경상대	2.14
4	경일대	2.10
5	부경대	2.02
6	전북대	2.01
7	울산대	1.82
8	경기대	1.81
9	계명대	1.80
10	한밭대	1.70

※ 출처: 중앙일보 2017년 9월 7일 (사회면)

건축공학분야 연구부문

교수 1인당 국제논문(편)

1	연세대(서울)	8.35
2	중앙대	8.33
3	한양대(서울)	7.99
4	충남대	6.05
5	세종대	5.24
6	경기대	5.12
7	고려대(안암)	5.03
8	조선대	4.86
9	송실대	4.13
10	성균관대	3.23

국제논문당 피인용(회)

1	연세대(서울)	2.65
2	송실대	2.17
3	충남대	1.92
4	경희대	1.76
5	성균관대	1.56
6	조선대	1.53
7	한양대(ERICA)	1.51
8	전남대	1.50
8	전주대	
10	이화여대	1.46

교수 1인당 교외연구비(원)

1	서울대	7억 6710만
2	이화여대	7억 4816만
3	고려대(안암)	3억 9708만
4	단국대	3억 7819만
5	성균관대	3억 1794만
6	경북대	3억 455만
7	충남대	2억 8435만
8	전남대	2억 7654만
9	경기대	2억 3730만
10	연세대(서울)	2억 3299만

교수 1인당 교내연구비(원)

1	성균관대	3699만
2	송실대	2338만
3	영남대	2277만
4	서울시립대	2178만
5	한양대(ERICA)	2140만
6	경북대	1987만
7	조선대	1300만
8	중앙대	1295만
8	전남대	1254만
10	고려대(안암)	1246만

※ 1인당 국제논문은 2015년 발간분에 저자기여도, 학술지 영향력(IF) 반영, 피인용은 2011~2014년 발간분의 2015년 말까지의 실적, 저자기여도 반영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제11회 전국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언어교육원(이승권 원장)은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책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은 지난 2008년 5월 법무부 다문화 사회통합 주요 거점대학으로 지정 받은 것을 계기로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이주민 지원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문화가정과 이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1996년 3월 외국인 언어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외국어 커리큘럼과 우수한 외국인 교수진을 확보하고 학습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20년 이상을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한국어 연수반 및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과정을 수준별로 개설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과 연계하여 베트남 빈즈엉 세종학당과 케냐 나이로비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에는 52명의 외국인 전임교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회화 등 제2외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브릿지 인재양성사업단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 교육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지역사회 교육기부 활성화 인정받아 교육기부 4관왕 달성

조선대학교 ‘호남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브릿지(BRIDGE)사업단’(이하 ‘브릿지 인재양성사업단’)은 ‘2017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인증으로 브릿지인재양성사업단(허유성 단장)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서와 함께 3년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정부가 인증한 진로체험기관으로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브릿지 인재양성 사업단은 지난 2014년부터 ‘배움과 삶, 나눔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온 다양한 교육기부와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그동안 △교육기부대상 △교육기부 우수기관 △교육기부 유공기관으로 선정되거나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도 선정되어 교육기부 관련 4관왕을 달성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되었다.

브릿지 인재양성 사업단 허유성 단장(특수교육과 교수)은 “사업단 창립부터 매년 꾸준히 교과목과 연계하여 봉사동아리, 소외계층 멘토링, 자유학기제 봉사단 운영 등 적극적인 교육기부 프로그램 확산해 온 것이 이번 인증심사에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라고 말했다.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지역 사회에 초·중·고교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심사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진로체험이 가능하도록 체험처를 확대하고, 체험의 질 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었다.

정현민 사무국장은 “사업단의 중요한 목적인 호남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브릿지 교육전문가 양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과목 개편과 현장전문가를 연계한 우수프로그램 운영, 나눔과 봉사기반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교사 기획 및 교수설계 역량제고, 브릿지 우수 인재의 진로취업 제고를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최첨단 스마트 러닝 및 PBL실 구축 지원 등 학교안팎에서 소외계층을 조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연구센터 ‘2017 할랄 교육과정지원사업’ 선정

GLOBAL KOREA 농수산물 수출 시장개척단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조선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연구센터(교육책임자 한상옥 교수)가 지난 9월 8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시행하는 ‘2017 할랄 교육과정 지원’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농수산물 수출 시장개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슬람 문화의 이해, 할랄/코셔 시장의 이해, 할랄/코셔 인증기관(KMF) 인증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할랄/코셔 시장 진입 도모 및 농수산물 수출 다변화 확대, 청년취업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는 9월 22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GLOBAL KOREA 농수산물 수출 시장개척단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운영된다.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에서 발행하는 세계최고 권위의 인명사전인
2018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에 등재

마르퀴즈 후즈 후 소개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로 189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했으며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남긴 리더를 선정해 이들의 업적과 이력을 소개하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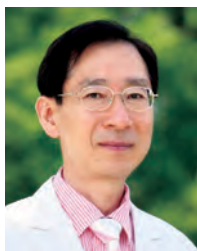
이남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이남근 교수는 세계저명 학술지를 비롯하여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 등 그동안의 수많은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남근 교수는 1954년생으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 대학원,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하였다. 1979년부터 조선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외협력부장, 사범대학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우선 전기공학과 명예교수



이우선 교수는 그동안 태양전지 소재 및 소자, 나노반도체, CMP 반도체 공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왔으며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SCI급 국제논문지에 총 95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국제적인용 논문편수는 2017년 10월 현재 1,105편이 피인용이 되었고, 논문 1편당 평균인용 수는 20회가 피인용 되는 등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 받았다.

이 교수는 중앙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 전기공학과에서 연수했고, 현재 조선대학교 전기공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반도체 소자 및 공정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한편, 이우선 교수는 학술논문 저술과 활발한 연구 활동성과 등을 인정받아 2017년 마르퀴즈 후즈 후 평생업적상(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으며 세계 3대 인명사전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미국인명정보기관(ABI)에도 등재된 바 있다.

홍성금 수학과 교수



홍성금 교수는 지난 15년 동안 국책 사업 지원을 통하여 △볼록 초곡면을 수반한 연산자 연구 △극대특이 적분 연산자 측정 △다중선형 특이 적분 연산자 등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화 해석학 분야의 중요한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최상위급 SCI저널들에 논문들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의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2009년 미국수학회-대한수학회 공동학술대회와 2014년 서울 세계수학자 대회에서 조화해석학 분야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수학회 사업이사, ZbMATH Reviewer 및 국제전문학술지의 Handling Editor로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성금 교수는 1987년 서울대학교 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이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이학 박사를 거쳐 2002년부터 조선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ACE+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홍광준 물리학과 교수



홍광준 교수는 '2017년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홍 교수는 최근 LED(light emitting diode), 태양전지 개발 등 반도체 소자 개발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n-CdS/p-CuGaInSe₂ 이종접합 박막 태양전지 개발 관련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 교수는 SCI 및 국내 학술지에 25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평생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홍광준 교수는 1977년 조선대학교 물리학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에서 석사, 전북대학교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3년부터 조선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연과학대학장, 연구처 부처장, 기초과학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홍 교수는 지금까지 마르퀴즈 후즈 후,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등 세계 3대 인명 사전 모두에 등재되는 영광을 누렸다.

박정환 간호학과 교수



박정환 교수는 그동안 다수의 SSCI 논문과 국제 학술대회 발표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다수의 국제전문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미국 록펠러(Rockefeller) 재단과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진행한 연구과제인 "Cities and Women's Health: Global perspectives"에서 전 세계 12명의 연구자 중 한명으로 선정되어 2년 동안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성공리에 연구를 마쳤다.

박정환 교수는 1993년에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에서 간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서 조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신정숙 교수

2017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2017 고객만족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2017년에만 각종 대회 시상식에서 무려 4차례 선정 수상되는 영광



기초교육대학 신정숙(자유전공학부) 교수는 9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연합매일신문사 주최 '2017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교육(인재양성)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 선호 브랜드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교수로 구성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와 소비자 권리 증진 연대 포럼, 기자단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수상자가 선정됐다.

신 교수는 또한 동아일보사(스포츠동아)에서 선정한 '2017 고객만족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교육대상(인재양성) 혁신리더 부문에도 선정됐다. 스포츠동아LIFE(기획특집)는 지면을 통해, 2017년도 상반기결산 기획특집으로 '2017고객만족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선정하여 비교 우위의 기술력과 경쟁력, 서비스 등을 갖춘 기업(기관), 병원, 제품과 우수한 인물 등을 각 분야별로 발굴, 심사, 선정, 소개하고 있다.

신 교수는 앞서 지난 8월과 9월에도 각각 월간 NewsMaker 주최 '2017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자유전공학 부문)' 선정, 월간 KOREAIN(월간 한국인) 주최 '2017 대한민국 혁신 한국인&파워 브랜드 대賞'(혁신교육·연구 부문) 선정 등 2017년 하반기에만 모두 4차례나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경순 교수 매경 신진학자논문상 수상



김경순 교수(경영학부)가 8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매경 신진학자논문상'을 수상했다.

김경순 교수가 이진훤 오산대 교수, 박연우 중앙대 교수와 함께 연구하여 발표한 수상 논문 '자발적 기술혁신 공개와 경영의 기회주의'는 경영자들이 기술 도입과 이전·제휴 등의 외부 기술혁신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했을 때 공시 이후의 장기성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한 내용이다.

이 논문에서는 외부창출 기술혁신 공시가 순수한 신호가 아니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혼합되어 있을 수 있고,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공시는 공시 이전의 회계이익의 질과 기술혁신 공시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더불어 기술혁신 공시는 유상증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조작의 도구로서 결합될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부의 이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를 제공했다.

이 논문은 SSCI 저널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한국경영학회는 매년 한 차례 열리는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 신진학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한국경영학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매경신진학자논문상을 신설했다. 신진학자논문상은 부교수 혹은 조교수가 연구의 주저자로 되어있는 논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논문 3편을 선정한다.



치과대학(원)장 안종모 교수

△1990년 조선대학교 △1993년 조선대학교 치의학 석사 △2001년 연세대학교 치의학박사 △2001년 조선대학교 교수 임용 △생체용임플란트융복합산업네트워크 및 Biz 센터장 △의료용 임플란트산업네트워크구축사업 센터장 △ 2012~2016년 치과병원장



공과대학장 이동기 교수

△1980년 조선대학교 공학사 △1983년 조선대학교 공학 석사 △1993년 국민대학교 공학박사 △1985년 조선대학교 교수 임용 △학생처장 △공과대학장 △산업기술대학융합원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IT융합대학장 최한수 교수

△1980년 조선대학교 공학사 △1982년 조선대학교 공학석사 △1994년 전북대학교 공학박사 △1984년 조선대학교 교수 임용 △대학원주임 △정보전산원장



외국어대학장 조희무 교수

△1984년 조선대학교 문학사 △1986년 전남대학교 문학석사 △1998년 전남대학교 문학박사 △1987년 조선대학교 교수 임용 △중국어학과장 △야간교학부장 △국제문화연구원장



제29회 조대문화상 시상식 거행

시 부문 김형호(문예창작학과 2), 소설 부문 박진영(문예창작학과 2) 각각 대상 수상



조선대학교 신문방송사(주간 서순복)가 대학의 올바른 이념을 구현하고 참다운 민족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공모한 제29회 조대문화상 시상식이 9월 25일 오후 3시 총장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시 부문 김형호(문예창작학과 2), 소설 부문 박진영(문예창작학과 2) 학생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김형호 학생은 작품 ‘옷장의 도로시’ 외 4편으로, 박진영 학생은 작품 ‘방위’로 대상을 받았다. 시 부문

최우수상은 김동우(문예창작학과 2), 우수상은 조주경(문예창작학과 1), 소설부문 최우수상은 김한나(문예창작학과 3), 우수상은 김세린(경찰행정학과 3)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2017학년도 약학대학 실무실습 수료식 개최

약학대학에서는 9월 12일 오후 1시 30분에 약학대학 2호관 4층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실무실습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는 실무실습 수료생 81명을 비롯해서 정형식 조선대학교 부총장, 최후균 대학원장, 정현철 광주광역시 약사회장을 비롯,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7 조선대학교 대동제 “청춘 더함”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



2017년 대동제는 “그대, 인생에서 다시 없을 청춘 더함”이라는 주제로 청춘의 열정과 즐거움, 청춘의 가치와 공동체를 풀어내는 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축제의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체의 면모를 느끼게 하고, 학부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학원생, 교직원 등 조선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동제로 만들어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날인 26일에는 개막식과 조선대 갓텔런트, 청춘사연, 인기가수 박보람과 에디킴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진행되었고 27일에는 청춘에 대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갖고자 기획한 ‘김재동 토크 콘

서트’와 레디, 지투, 허클베리핀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열렸으며,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인디밴드 공연과 폐막식,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신나는 EDM 공연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밖에도 메인 부스, 청춘 영상제, 주막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되었다.

25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

환경미화, 경비요원에게 추석 명절 선물 전달

조선대 강동완 총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8일 오전 총장실에서 환경미화, 경비, 주차, 버스운전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근로자 220명에게 우리밀 세트를 전달하고 노고를 위로했다.



미대 패션디자인 전공 졸업작품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졸업작품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시회 개최”

미술대학은 ‘패션디자인전공 졸업작품 전시회’를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대나무정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학생 13명의 4년간의 대학생활에 대한 결실을 맺는 졸업 작품으로서 시민들에게 패션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광주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참여형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의 체험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예비 디자이너와 관객들 간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참여형 전시는 전시된 작품과 동일한 13벌의 의상에 관람객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원하는 문구를 자유롭게 낙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과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미대 시각디자인학과 졸업작품전

미술대학 “2017 시각디자인학과 졸업작품전시회” 개막
유스퀘어 문화관 2층 금호갤러리에서 전시

미대 시각디자인학과에서는 제67회 시각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를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2층 금호갤러리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45명의 졸업예정자들이 지난 4년 간의 꿈과 열정의 산물로 탄생된 각각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패키지 디자인, 광고 일러스트, 영상 편집 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되었다.



조선대학교 박물관 개관 25주년 기념 점심 강좌

“Lunch Time Talk” 개최 가을학기 5회 무료로 진행

조선대학교 박물관(이기길 관장)에서는 점심강좌 “Lunch Time Talk”를 개최한다. 박물관 개관 25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호남 첫 인류의 발자취에 대한 강좌로 9월 21일을 시작으로 총 5번의 강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행사는 교직원과 학생뿐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매회(목요일 낮 12시)마다 30명을 사전에 신청 받아 박물관 교육실(서석홀 2층)에서 진행하며 점심은 무료로 제공된다.

강좌 일정

- 09월 21일 호남인류사의 타임캡슐, 순천 죽내리 유적
- 10월 12일 전북 구석기의 문을 열다, 진그늘과 하가 유적
- 11월 02일 장흥 신복유적과 흑요석의 비밀
- 11월 16일 국가사적 제458호, 순천 월평 유적
- 11월 30일 구석기 유적과 보존회 그리고 민립대학

▷ 일시 : 목요일 낮 12:00~13:10
(가을학기 9월~11월 중, 강좌 일정 참조)

▷ 장소 : 박물관 교육실(서석홀 2층)

▷ 강사 : 이기길(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겸 박물관장, 한국구석기학회장)

▷ 참가대상 : 교직원/학생/지역민 (매회 30명)

▷ 참가비 : 무료(점심 제공)

▷ 주최 및 접수 : 조선대학교 박물관
(담당자 김수아 / 연락처 230-6333)

※ 본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전날 12시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 학생은 참가 시 문화마일리지 적립 가능

27



전남교육청 관리자 대상 위기관리 연수 개최

조선대학교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관리자대상 위기관리 연수' 실시

전라남도교육청(장만채 교육감) 주최로 9월18일부터 20일까지 전남 관내 학교 교장과 교육장 855명을 대상으로 3기에 나누어 관리자 대상 학생위기관리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위기 학생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행사로 특히, 조선대 정신의학과 교수이며 한국 분석심리학회장인 박상학 교수의 “위기학생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라는 주제로 위기 학생들의 심리를 분석하여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연수에는 발암물질인 석면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개선, 학생생활안전과의 학교폭력예방으로 성폭력, 가정폭력예방을 포함하였으며, 교육복지과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및 방과후 학교 운영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용 등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

개관 3주년 기념 무료해설관람 시행



29

조선대학교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김병철 관장)에서는 9월 30일(토) 개관 3주년을 맞아 학교 구성원 및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해설 관람을 시행했다. 개관기념일인 이날 하루 동안 총 4회(1회차: 10:30, 2회차: 11:30, 3회차: 13:30, 4회차: 14:30)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난 2014년 9월 30일에 개관한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에는 재미교포 장항남 박사로부터 기증받은 4,500여 점의 정보통신 기기가 전시되어 있다. 170여 년 정보통신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과학문화의 요람으로 개관 이래 3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체험 학습의 장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에서는 전기의 발생과 성질, 모터의 원리, 모르스키 연습, 우체국 전보 체험, 방송국 체험, 반달곰 추적 체험, 드론 체험 등 과학의 원리를 터득하는 상설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유료 체험 프로그램으로 초인종 만들기, 단극성 모터 만들기, 직류모터 만들기, 모르스 부호 해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입장가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문의 062)230-7780~2

법과대학 법학과 창립 71주년 기념행사 일환

● 인사 잘하기 캠페인 전개

법과대학(김재형 학장)은 법학과 창립 71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인사 잘하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법대 전체 교수별로 수업시간 전에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현수막과 배너를 통한 홍보를 병행하는 한편, 9월 19일에 법대 건물 앞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 피켓 홍보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31일 오전 9시에 인성교육 전문가인 양동희(사단법인 ‘함께하는 가정운동본부 광주·전남 지부’) 지부장을 초청하여 ‘인간관계형성을 위한 피플퍼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 김관재 전 광주고등법원장 유채화 1점 기증

지난 9월 12일 김관재 전 광주고등법원장이 법과대학에 유채화 1점(박창래 작가 작품)을 기증하였다. 가을 주제의 그림을 기증하면서 인생의 가을은 너무 쉽게 찾아오니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학문에 전념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김관재 전 광주고등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지방법원 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12년 (사)21세기여성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제9회 ‘21세기 국민모범인상’을 수상하였다. 김 전 고등법원장은 30여 년간의 법관생활을 통해 참 정의 실현과 법률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에 대한 애정이 깊어 지금까지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 평생지도교수 만남 및 가을대운동회 개최

법과대학은 10월 12일 평생지도교수 만남 및 가을대운동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각 학과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평생지도교수와 상담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대운동장에서 학생, 교수(명예교수 포함), 동문, 황금추 동광건설 회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대운동회가 열렸다.

축구를 비롯 다양한 종목들을 교수와 학생, 동문, 지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경기를 펼쳤다. 특히 한궁이라는 경기를 통해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참석자 모두 함께 즐기는 멋진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재형 법과대학 학장은 “법과대학 동문들과 학부모, 더 나아가 법과대학을 사랑하는 지역민들과 함께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진 법과대학 동창회 상임부회장은 “71년의 법과대학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8천여 동문들이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수 법과대학 회장도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자랑스러운 동문 선배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 더욱 모범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동안 법과대학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황금추 (주)동광건설 회장은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법과대학이 세계 속으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운영

“도서관을 인문학 대중화의 거점으로 활용”

“지식과 재미와 감동을 주는 인문학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실현”



32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이계만 관장)은 공공, 대학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인문학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과 역사를 성찰하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통해 현장과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인문학을 구현하고 역사·철학·문학 등의 인문학자들과 주민들이 인문학 강연 및 탐방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인문학을 보다 친숙하고 일상화·생활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강연과 탐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독서와 결합하여 새로운 독서문화의 장 구축을 목표로 한다.

조선대학교는 자유학기제 연계형 부문으로 ‘『로드 인 광주 (Road in : Gwangju)』: 광주의 시간을 따라 걷다’라는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지난 8월25일부터 11월4일까지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1학년 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에 서려 있는 인문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확인하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특성상 도서관 사서, 여행가, 인문학교육자, 청년연사 등 다양한 직업경험이 가능한 교육, 최근 이슈를 반영한 토론교육, 지역 내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컬 교육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계만 도서관장은 “독서교육뿐만 아니라 토론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교육효과를 가져오고, 지루한 강연형식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인문학 콘서트’로 지식과 재미와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참조 : 프로그램 세부내용

〈제1차〉 - 무등산과 임진왜란의 역사

▷ 주제 : 과거(Past) : 〈 무등산과 임진왜란의 역사 〉

▷ 내용 : 무등산 속에 서려있는 광주의 역사를 공부하고 직접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

- 강연1 : 무등산과 임진왜란의 역사 1
 - 서금석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강사)
- 강연2 : 무등산과 임진왜란의 역사 2
 - 서금석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강사)
- 탐 방 : 무등산 역사길 탐방
 - 장여진 (스카이에듀 지리강사)

▷ 일시

- 강연1 : 2017년 8월 25일(금요일) 14:00~16:00 (2시간)
- 강연2 : 2017년 9월 1일(금요일) 14:00~16:00 (2시간)
- 탐 방 : 2017년 9월 19일(화요일) 09:00~13:00 (4시간)

▷ 프로그램 내용

과거(Past) : 무등산과 임진왜란 역사

광주하면 무등산과 5·18 민주화운동이 유명하지만 과거 역사 속의 구국활동도 활발했다. 무등산 속에 서려있는 임란 시의 구국운동, 총장로로 유명한 총장공 김덕령장군, 많은 사람들을 키워냈던 사촌 김윤제와 청산별곡으로 유명한 송강정철 등 익숙하면서도 어색한 광주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에게 제공한다. 강의 후에는 직접 무등산의 총장사와 풍암정, 환벽당과 호수생태공원 등 무등산 역사길을 탐방하여 학생들에게 역사적 과정을 일깨움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제2차〉 - 문화중심 광주 : 아시아 문화 돌아보기

▷ 주제 : 현재(Present) :

〈 문화중심 광주 : 아시아 문화 돌아보기 〉

▷ 내용 : 젊은 여행가들의 여행기로 세계문화를 배우고 아시아 문화의 허브인 광주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

- 강연1 : 여행가의 눈으로 본 아시아문화 허브 도시 광주
 - 김태진(지역활동가)
- 강연2 : 여행가의 눈으로 본 광주와 세계 문화 비교
 - 정소피아(지역활동가)
- 탐 방 : ACC 국립문화아시아전당 관람
 - 김태진(지역활동가)

▷ 일시

- 강연1 : 2017년 9월 08일(금요일) 14:00~16:00 (2시간)

- 강연2 : 2017년 9월 15일(금요일) 14:00~16:00 (2시간)
- 탐 방 : 2017년 10월 20일(금요일) 09:00~13:00 (4시간)

▷ 프로그램 내용

현재(Present) 〈 문화중심 광주 : 아시아문화 돌아보기 〉

우리 지역의 유명 여행가들을 초대해 국내 혹은 세계 각지의 여행기를 듣고, 아시아권 문화를 비교해 본다. 아울러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아시아 문화의 허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주의 현재를 살핀다. 또한, 광주가 진정한 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소양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토크콘서트를 통해 연사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탐방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아카이브와 아시아문화예술 전문 아카이브 관람을 중심으로 아시아 문화예술 전반에 대하여 체험한다.

〈제3차〉 - 4차산업혁명을 넘어서 : 인간 vs 인공지능

▷ 주제 : 인간 vs 인공지능

▷ 내용 : 인공지능에 대한 북브리핑, 토론대회 진행 : 문명훈 스터디셀러 독서토론회(토사)

- 강연1 :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
- 강연2 :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북브리핑, 인문학적 능력이란?
- 강연3 : 디베이트 교육 및 그룹별 토론
- 후속모임 : 모의토론대회 진행

▷ 일시

- 강연1 : 2017년 10월 13일(금요일) 14:00~16:00 (2시간)
- 강연2 : 2017년 10월 27일(금요일) 14:00~16:00 (2시간)
- 강연3 : 2017년 11월 3일(금요일) 14:00~16:00 (2시간)
- 후속모임 : 2017년 11월 4일(토요일) 14:00~16:00 (2시간)

▷ 프로그램 내용

미래(Future) - 4차산업을 넘어서 : 인간 vs 인공지능

100년은 더 걸릴 것 같았던 인공지능 개발이 딥러닝과 빅데이터로 이제 10년 앞으로 다가왔다. 인류보다 지능적으로 더 완벽한 존재가 등장한 것이다. 인공지능은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로봇의 모습을 벗어나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곳곳으로 들어간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를 습득한다. 또한 '칼 포퍼 디베이트 포맷' 형식의 기본 토론 모형에 대하여 배운 후, 김대식의 책 '인간 vs 기계'를 읽고 토론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한다.

함께형 Book릴레이

1. 목적

- 가. 선정된 한 권의 책 <청춘심리상담 : 김태형 저>을 조선대학교 전 구성원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문화적 경험을 공유함.
- 나.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시대에 책을 매개로 의견을 나누며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2. 방식

- 스타트 주자가 한 책 완독 후 책을 추천하고 싶은 다음 주자에게 전달
- 한 책 전달시 책 커버에 동봉된 메모지에 완독 표시와 한 줄 메시지 기록
- 한 주자가 책을 3주 이상 소지한 경우(시험기간 제외) 자동으로 다음 주자에게 전달
- 북릴레이 참여 후,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Book(북)릴레이 '한 책 한 줄 느낌' 게시판에 인증 절차를 거치면 기념품(커피 교환권) 증정
- 릴레이 마감 후 모든 참여자의 소속 단과대학을 분석하여 우수 단과 대학 시상

3. 기타행사 : 저자초청강연 : 11. 8.(수) 오후 3시 예정

북작담회 : 11. 29.(수) 오후 3시 예정

4. 문의 : 의학학술정보센터(230-7546)

Book으로 통하다

1. 제출기간

2017년 9월 4(월) ~ 2017년 10월 20일(금) (학부재학생 선착순 300편)

2. 참여방법

- 가. 도서관에서 도서대출 후 감상문을 제출한다 (총300편)
- 나. 감상문 제출자 전원에게 편당 문화상품권 1만원 지급 (최대2편 제출 가능)
- 다. 감상문 작성 및 제출시 주의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감상문 피드백기간 : 2017년 9월 11일 ~ 2017년 10월 31일
 - 문화상품권 지급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1월 10일(금)

3. 신청방법

cu-sp홈페이지 (<https://cusp.chosun.ac.kr/user>) → 글쓰기센터 → 글쓰기 클리닉 및 상담 → 클리닉 신청 및 결과 → 상담신청 → Book으로 통하다 → 감상문제출도서 선택 (파일첨부 후 저장)

4. 제출된 감상문에 대하여 감상문 첨삭지도를 한다.

- 감상문 피드백 실시 후 우수자 시상 : 8편 편당 문상 추가 2만원 지급

5. 선정도서

-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 노명우 - 결혼시장 / 존카르본, 나오미 칸
- 82년생 김지영 / 조남주 - 게놈 익스프레스 / 조진호
- 아주 기묘한 날씨 / 로런 레드니스

★ 북으로통하다 도서는 3층 인문사회예술역사자료실 북통도서관코너에 배가되어 있음.

★ 인터넷 및 타인 독후감 복제시 무효처리.

6. 문의 : 문학자료실(230-7537)

ACE협의회 4개 대학 연합 독서토론대회

1. 신청기간 : 2017. 10. 23.(월) ~ 2017. 11. 2.(목)

2. 신청 방법 및 참가 자격

- 가. 신청방법 : 신청서와 논술문 작성 후 메일(msim@chosun.ac.kr) 접수
- 참가신청서, 논술문 양식 : 첨부파일 참고
 - 예선 논술문 제출
 - 예선주제 : 결혼, 합리적인 선택인가?
 - 작성방법 : 지정도서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노명우 저'를 읽고 논제를 제시하고 그 주장과 논거를 논술문 양식에 맞게 작성 할 것
- 나. 팀구성은 재학생에 한하며, 2인 1조 1팀
- ※ 논술문 작성 및 본선 진출 대비 교육 안내
- Book 콘서트 : 10. 31.(화) 15시~,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
 - 16강선발팀 OT 및 토론교육 :
11. 10(금) 15시~,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
→ 지정도서 내용에 대한 이해 및 논술문 작성 방향 제시, 독서토론기법 교육

3. 심사 방법

- 예선 논술문 심사를 통과한 본선 진출 16개팀 선정 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
- 2017. 11. 6.(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16강 진출팀 발표

4. 토론 주제 및 지정 도서

- 주제 : 결혼, 합리적인 선택인가?
- 지정도서 :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 노명우 저,
결혼시장 / 준 카르본, 나옴이 칸 저

5. 참가대학 : 조선대학교(주관), 동신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

6. 시상내역 : 독서토론 대상 1팀(2명) 100만원 등

7. 문 의 : 인문사회자료실(230-7506)



조선대학교 2017년도 1학기 ACE Best Teacher상 시상식 개최



36

조선대학교는 ACE사업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17학년도 1학기 ABT(Ace Best Teacher)상 시상식을 10월 13일 오전 11시30분 신양파크호텔에서 개최했다.

ABT(Ace Best Teacher)상은 교육분야 우수교원 시상을 통해 교수활동의 질 및 교육효과성 제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함께’형 문화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상자 선정은 조선대학교 전체교원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업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단과대학 별로 1차 후보자를 선정하고, 교육역량개선(CQI) 보고서 작성점수, CU-TP작성점수, 교육개선활동분야 점수 등을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2017학년도 1학기 ABT상 수상자로 총 40명(전임 25명, 비전임 15명)이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별도로 3회 연속 ABT상 수상자 3명에게는 상패와 연구실 문패를 기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강동완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새로운 학습방법 등 교육 혁신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 대학은 ACE사업 선정 이후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함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습자중심의 교육 혁신과 교수학습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미래 선도적인 교육모델 개발에 더욱 더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GREAT ABT상(3회 연속) 수상자 3명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황병하,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이창열,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정경복

● 전임교수 25명

인문과학대학(1명) - 문예창작학과 나희덕

자연과학대학(2명) - 수학과 홍성금, 식품영양학과 이재준

법과대학(1명) - 법학과 정구태

사회과학대학(1명) - 행정복지학부 정성배

경상대학(2명) - 무역학과 이창재, 무역학과 송윤아

공과대학(6명) - 기계공학과 정성용, 토목공학과 정명훈,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김형기,
기계시스템미래 자동차공학부 이성준, 기계공학과 박정수, 선박해양공학과 안규백

사범대학(2명) - 물리교육과 조광희, 특수교육과 김정연

외국어대학(2명) - 아랍어과 사희만, 러시아어과 허성태

체육대학(1명) - 체육학과 윤오남

의대/약대(1명) - 약학과(2+4년제) 최홍석

미술대학(2명) - 회화학과 박홍수, 회화학과 김종경

전자정보공과대학(2명) - 정보통신공학과 신영숙, 전자공학과 이진이

기초/보건대학(2명) - 상담심리학과 오지현, 자유전공학부 구형근

● 비전임 교수 15명

인문과학대학(1명) - 문예창작학과 유은실

자연과학대학(1명) - 식품영양학과 최지연

법과대학(1명) - 법학과 김현우

사회과학대학(1명) - 행정복지학부 김은철

경상대학(1명) - 무역학과 김지훈

공과대학(2명) - 토목공학과 황선하, 토목공학과 최웅

사범대학(1명) - 교육학과 이명주

외국어대학(1명) - 아랍어과 서정민

체육대학(1명) - 체육학과 김원경

의대/약대(1명) - 간호학과 박서진

미술대학(2명) - 디자인학부 노금영, 디자인학부 김혜림

IT융합대학(1명) - 컴퓨터공학과 최광미

기초/보건대학(1명) - 상담심리학과 이다경



ACE 사업단 ‘ACE 라운지’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과 상담 등 효율적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



중앙도서관 1층에 ACE 라운지를 설치하고 9월 22일 개소식을 거행했다.

ACE라운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과 회의, 휴식, 상담 등 복합적인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제공된다. 도서관에 ACE라운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학생회관-국제관-중앙도서관-해오름관’으로 이어지는 학생 클러스터 존이 구축되었고, ACE라운지 내에 최근 흐름에 맞춘 ‘크리에이티브 존’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유로운 창의적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CE사업 일환 학생들의 3C핵심역량강화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위한 학습법 워크숍 개최

KBS 직종별 어벤저스의 취업 멘토링

PD, 아나운서, 기자, 행정 및 기술 담당 전문인의 토크콘서트 및 1:1 멘토링 진행



39

교수학습개발팀에서는 10월 12일 오후 2시 중앙도서관 일원에서 ACE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재학생들의 3C핵심역량강화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한 '학습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KBS 직종별 어벤저스의 취업멘토링'을 주제로 KBS 방송국 유명 PD, 아나운서, 기자, 행정 및 기술담당 등 전문방송인들이 직접 참여해 토크콘서트와 직종별 1:1취업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역 방송인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언론 및 방송계 취업 진로 학습 강화에 도울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KBS 김한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한솔 PD와 박대기 기자가 강사로 나선 토크콘서트는 방송인이 되는 법, 공영방송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시종일관 진지하고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중앙도서관 1층 에이스라운지 창업카페에서는 방송 직종별 1:1 취업멘토링이 진행되었다.



조선대학교 LINC+ 사업단

조선대학교 LINC+ 사업단에서는 9월 24일 ~ 27일, 3박 4일 동안 싱가포르 장기 현장 실습 파견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진행 사항 점검과 대상 기업과의 업무 협의(MOU체결), 파견학생 지도를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 24일(일) 현장 실습생들의 생활 환경, 실습 자세 등에 대한 확인 및 지도
- 25일(월) 싱가포르 인턴 직무 교육 및 취업 알선 기관(Empire Inc.) 방문
△ 직무 교육 내용 확인 및 향후 파견 시 교육 등 프로그램운영 협의 △파견 학생들의 기업 배치 및 수행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현장 실습 학생 공동으로 신규 임차한 숙소(아파트) 확인 방문
- 26일(화)~27일(수) 파견 대상(현장 실습 진행)기업 방문
△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수행업무 내용에 대한 협의 △ 현장실습 업무협약서 작성
Boulevard, Brinks, MDS Retail Service등 방문

● 주요 활동 사진 ●



인턴 직무교육



싱가포르 취업선배(미국 전자부품회사 싱가포르지사 주서현팀장)와의 대화



MDS Retail 사무실 앞



Brinks 사무실 앞



Boulevard 사무실 앞



Empire Inc. 그룹 사무실 앞에서 컨설턴트(김용현 팀장)와 함께

협 | 약 | 체 | 결

■ YMCA

조선대학교와 광주 YMCA는 8월 28일(월) 14:00,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상생 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지역청소년들의 건강한 시민의식 형성과 신장을 위한 상호 교류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 포럼 및 프로그램 협력 △민주평화인권의 5.18광주정신을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승화를 위한 공동 노력 △지역 청소년들의 평화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류

확대 △조선대학교 CU Again 7만 2천 프로젝트 협조 △기타 양 기관의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 중국 하북성 교육청 등 4개 기관(대학)과 협약 체결

“부리 산업 관련 학과 유학생 유치 및 향후 협력 강화 모색”

조선대학교는 9월 15일(금) 오후 4시 본관2층 소회의실에서 중국 하북성 교육청을 비롯, 하북화공의약직업대학, 하북여자직업대학, 하북소프트웨어기술대학 등 4개 기관 및 대학과 부리산업 관련 학과 유학생 유치 및 지속적인 교류활동 등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식에는 갑해명(하북성 교육청) 부청장, 채서경(하북화공의약직업대학) 당위서기, 도신순(하북여자직업대학) 당위서기, 전명홍(하북소프트웨어기술대학) 총장, 갑능화(석가장공정기술학교) 부교장, 곽위풍(하북공업직업기술대학) 교사 등 중국측 인사와 조선대

학교 강동완 총장을 비롯하여, 김성중 대외협력처장, 방희선 교수, 최영일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오교성 군장대학교 국제교류원장, 한용섭 거제대학교 국제교류센터장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했다.



■ 조선대학교 KCTV광주방송 간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MOU 체결

조선대학교는 9월 28일 오후 4시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KCTV 광주방송과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및 공동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법으로는 협약 내용 추진에 있어 △정보 공유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문 △연구 △컨설팅 △공공사업 공동참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협의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 김재수 연구처장, 김성중 대외협력처장, 윤갑근 인사혁신처장, 김균영 총무관리처장, 박복만 대외협력부처장, 기홍상 홍보팀장과 KCTV광주방송 최용훈 대표이사, 진호림 방송사업국장, 정기명 경영국장, 이종남 기술국장, 신상옥 미디어사업팀장, 이승직 마케팅 팀장 등이 참석했다.



■ 전남복지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

조선대학교는 10월 10일(화) 오전 11시 30분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전남복지재단(곽대석 대표이사)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협력 분야로는 △선취업·후진학, 특별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연구, 교육지원 △상호 효율적 교육을 위한 공동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정보 교류 △4차산업 구축을 위한 양기관의 전문가 교류 및 자문 컨설팅 △기타 양 기관의 우호증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인 협력 방법으로는 양기관의 우호증진을 위해 △정보 공유 △교육 △자문 △연구 △컨설팅 및 공공사업 공동참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협의하여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 치매국책연구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MOU체결

“치매 걱정 없는 건강사회 구현에 기여”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이건호 단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윤영균 원장)과 9월 20일 오전 11시 조선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치매 없는 건강사회 구현과 산림복지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건강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체결협약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산림프로그램의 치매예방 효과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조사 분석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상호협력 △치매 걱정 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확산 노력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업무 협약(MOU) 체결

조선대학교는 10월 12일(목) 오후 4시 공과대학 제1공학관 2층 중회의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방재성 본부장)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 김성중 대외협력처장, 방한서 교수, 방희선 교수, 송국현 교수, 박복만 대외협력부처장, 기홍상 홍보팀장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방재성 본부장, 문경진 경영지원팀장, 장행만 입주지원팀장, 조영학 간사 등이 참석했다.



조선대학교 2018학년도 정시모집

정시모집 가군/나군

1.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가군			나군			
				수능 (일반)	지역 인재	실기 (일반)	수능 (일반)	실기 (일반)	평생 학습	평생학습 (정원외)
인문과학 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60	12						
		영어영문학과★	70	14						
		역사문화학과	50	10						
		철학과	30	6						
	예능 인문	문예창작학과	32	6						
		한문학과	20	3						
자연과학 대학	자연	수학과	45				9			
		컴퓨터통계학과	39				8			
		물리학과	37				6			
		화학학과	50				10			
		생명과학과	50				10			
		의생명과학과	45				9			
		식품영양학과	42				8			
		식품영양학과	42				8			
법과대학	인문	법학과★	162	32						
		경찰행정학과	37	7						
사회과학 대학	인문	행정복지학부★	80	16						
		정치외교학과	54	11						
		신문방송학과	45	9						
		군사학과	50							
경상대학	인문	경영학부★	252				63			
		경제학과★	133				26			
		무역학과★	90				18			
		무역학과★	90				18			
공과대학	자연	•토목공학과★	62	12						
		건축학부	• 건축공학전공	45	9					
			건축학전공(5년제)	36	7					
		•기계공학과★	135	27						
		•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	131	26						
		•생명화학고분자공학과	121	24						
		재료공학과	100	20						
		•산업공학과	49	10						
		전기공학과	80	16						
		•광기술공학과	50	10						
		•선박해양공학과	36	4						
		•항공우주공학과	44	8						
		•환경공학과	60	12						
		•원자력공학과	41	9						
		•에너지자원공학과	50	10						
		융접·접합과학공학과	30	6						
		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100				26			
IT 융합대학	자연	전자공학부(지능IoT전공)	50				15			
		컴퓨터공학과	120				19			
		•정보통신공학부(정보통신공학전공)	76				12			
		정보통신공학부(임베디드보안전공)	30				9			
		정보통신공학부(임베디드보안전공)	30				9			
사범대학	인문	국어교육과	35				13			
		영어교육과	35				13			
		특수교육과	30				9			
		수학교육과	27				8			
	자연	물리교육과	20				5			
		화학교육과	20				5			
		생물교육과	20				5			
		지구과학교육과	20				5			
		지구과학교육과	20				5			
	예능	음악교육과	30					6		
	인문	교육학과	20				6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가군			나군			
					수능 (일반)	지역 인재	실기 (일반)	수능 (일반)	실기 (일반)	평생 학습	평생학습 (정원외)
외국어대학	인문	영어과		45				9			
		아랍어과		36				7			
		일본어과		40				9			
		중국어문화학과★		50				11			
		독일어문화학과		24				5			
		러시아어과		35				7			
		스페인어과		33				7			
		프랑스어권문화학과		35				7			
체육대학	체능	체육학과★		100					30		
		스포츠산업학과		30					10		
		태권도학과		40					15		
		공연예술무용과		30					5		
의과대학	자연	의예과		88	18	18					
		간호학과		80	39						
치과대학	자연	치위예과		56	11	11					
미술대학	예능	회화학과	서양화전공	22					5		
			한국화전공	15					4		
		미술학과	현대조형미디어전공	23					5		
			시각문화큐레이터전공	13				3			
		시각디자인학과		32					6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18					4		
			섬유·패션디자인전공	28					6		
			가구·도자디자인전공	35					7		
		디자인공학과		35					7		
		만화·애니메이션학과		36			12				
기초교육 대학	-	자유전공학부		29	15						
보건 과학 대학	인문	상담심리학과		29	6						
	자연	언어치료학과		27	5						
		작업치료학과		40	8						
미래사회 융합대학	인문	휴먼융합서비스학부		8						2	0
	자연	ICT융합학부		12						2	0
총계				4,300	438	29	12	382	110	4	0

※ '★' 표시 모집단위는 전일제수업 실시학부(과)이며, 주간 또는 야간에 수강할 수 있음

※ '·' 표시 모집단위 입학생은 전원 공학교육인증 공학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 학부 개설전공 : 행정복지학부(행정학, 사회복지학), 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기계시스템공학, 미래자동차공학)
전자공학부(전자공학, 지능IoT), 정보통신공학부(정보통신공학, 임베디드보안)

2. 지원자격

가.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18학년도 수능 해당 영역에 응시한 자

모집단위(계열)	수능 응시영역
인문계, 자연계, 자유전공학부	국어, 수학(가/나), 영어, 탐구(사회/과학 2과목), 한국사
의예과, 치의예과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2과목), 한국사
예체능계	국어, 영어, 탐구(사회/과학 2과목), 한국사

나. 지역인재전형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201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2과목), 한국사에 모두 응시한 자

다. 평생학습자전형: 수능 반영 안함

3. 전형요소별 실질반영점수

모집단위(계열)	수능	면접고사	실기고사	학생부 교과	학생부 출석	총점
인문계, 자연계, 의예과, 치의예과, 문예창작학과, 자유전공학부, 미술학과 시각문화큐레이터전공	700 (100%) 700 ~ 0	-	-	-	-	700 (100%) 700 ~ 0
사범대학(음악교육과 제외)	700 (97.8%) 700 ~ 0	100 (2.2%) 100 ~ 84	-	-	-	800 (100%) 800~84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700 (46.2%) 700 ~ 0	100 (1.0%) 100 ~ 84	800 (52.8%) 800 ~ 0	-	-	1,600 (100%) 1,600~84
체육대학 미술대학(시각문화큐레이터전공 제외)	700 (46.7%) 700 ~ 0	-	800 (53.3%) 800 ~ 0	-	-	1,500 (100%) 1,500~0
미래사회융합대학	-	50 (50%) 100~50	-	40 (40%) 400~360	10 (10%) 100~90	100 (100%) 600~500

※ 기본점수를 제외한 최고점과 최저점(기본점수)간 실질반영점수 및 비율임

※ 파란색 숫자는 최고점 ~ 최저점(기본 점수)

4 수능성적 반영방법

가. 계열별 반영점수 및 비율

※ 탐구영역 : 응시한 2과목 백분위점수 평균 반영

나. 수능성적 반영방법

1) 수능영역별 점수 반영

- 국어, 수학, 탐구영역 : 2018학년도 수능시험 각 영역별 백분위점수를 반영비율에 따라 적용
- 영어영역 반영방법

모집단위 (계열)	반영점수(반영비율)				총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인문	225 (32.1%)	150 (21.4%)	200 (28.6%)	125 (17.9%)	700 (100%)
자연 의예과, 치의예과	150 (21.4%)	225 (32.1%)	200 (28.6%)	125 (17.9%)	700 (100%)
예체능	300 (42.8%)	-	200 (28.6%)	200 (28.6%)	700 (100%)
자유전공학부	200 (28.6%)	150 (21.4%)	200 (28.6%)	150 (21.4%)	700 (100%)

등급	1	2	3	4	5	6	7	8	9
수능원점수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39~30	29~20	19~0
반영점수	200	170	140	110	90	80	70	60	50

47

다. 가산점부여

- 계열별 가산점

모집단위(계열)	가산점
인문	· 사회탐구 응시자는 사회탐구 반영점수의 10% · 외국어대학 지원자는 제2외국어/한문 백분위점수의 5%
자연	· 수학 가형 응시자는 수학 반영점수의 15% · 과학탐구 응시자는 과학탐구 반영점수의 10%
자유전공학부	· 수학 가형 응시자는 수학 반영점수의 15%

- 한국사 가산점

등급	1	2	3	4	5	6	7	8	9
수능원점수	50~40	39~35	34~30	29~25	24~20	19~15	14~10	9~5	4~0
반영점수	10			9			8		

군사학과 전형

수시/정시 가군

1. 모집인원

모집시기	계열	입학정원	모집인원	
수시모집	인문계	50명	38명	남자 28명, 여자 10명
정시모집(가군)			12명	남자 12명

- ※ 수시모집 미충원인원은 정시 가군 군사학과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함
- ※ 수시모집 여자 미충원 발생 시 정시 가군에서 여자 모집함
- ※ 육군본부와 협의에 따라 전형일정 및 전형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구체적인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2. 지원자격

-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1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가/나), 영어, 한국사에 모두 응시한 자
- 나. 군 인사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만 16세 이상 23세 이하인 남녀(1995. 7. 1. ~ 2002. 6. 30. 출생자)
- ※ 이미 군복무를 마친 자도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함
- 다.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남학생에 한함)
-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제한 시 지원 불가
 - ※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시 재정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군가산 복무 지원금 권리 상실

3. 수능최저학력기준

201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가/나),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15 이내
(수학 가형 응시자는 해당 영역 1등급 상향 적용)



4. 전형방법

가. 방법 : 다단계 전형

나.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

구분	전형요소	1단계 선발(4배수)	최종 선발					
		학생부	학생부	체력 검정	면접 평가	합계	인성 검사	신체 검사
		수능	수능					신원 조회
수시		500 (100%) 500~450	800 (28.6%) 800~720	100 (35.7%) 100~0	100 (35.7%) 100~0	1,000 (100%) 1,000~720	합격/불합격만 판정	
정시		800 (100%) 800~0	800 (80%) 800~0	100 (10%) 100~0	100 (10%) 100~0	1,000 (100%) 1,000~0		

※ 파란색 숫자는 최고점 ~ 최저점(기본 점수)

5. 성적 반영방법

가. 학생부 반영방법 :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과 동일

나. 수능성적 반영방법

1) 수능영역별 반영점수 및 비율(정시)

반영영역	국어	수학(가/나)	영어	합계
반영점수 (반영비율)	300 (37.5%)	300 (37.5%)	200 (25.0%)	800 (100%)

2) 수능영역별 점수 반영방법

- 국어, 수학 : 2018학년도 수능시험 각 영역별 백분위점수를 반영비율에 따라 적용
- 영어영역 반영방법

등급	1	2	3	4	5	6	7	8	9
수능원점수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39~30	29~20	19~0
반영점수	200	170	140	110	90	80	70	60	50

3) 가산점 : 수학 가형 응시자는 수학 영역 반영점수의 15% 가산점 부여

조선대학교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2017. 10. 27.(금) 10:00~ 11. 7.(화) 17:00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진학사어플라이 http://www.jinhak.com/ (콜 센터 1544-7715)
입학지원서(출력본) 및 서류제출	2017. 10. 27.(금) 10:00~ 11. 8.(수) 17:00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 접수 <우>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구술시험(면접)	2017. 11. 23.(목) 09:00~ 11. 25.(토) 12:00	학과에서 지정한 일시 장소 (모집요강 주임교수 명단 참조)
합격자 발표	2017. 12. 11.(월) 예정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www.chosun.ac.kr/~grad) 공지사항에 발표함(개별통보 없음)
합격자 등록	2018. 1. 15.(월) ~ 1. 19.(금)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추후 안내

2. 모집인원

학위과정	계열	인원
석사 (협동과정 포함)	인문사회	350명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박사 (협동과정 포함)	인문사회	288명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계		638명

※ 모집학과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http://www.chosun.ac.kr/~grad> 또는
대학원 교학팀(☎062-230-6401~5) 문의

학과별 분석결과 상위 50%학과 공개

• 2017학년도 1학기 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학과별 분석 결과(상위 50%) •

구분	응답자 (명)	교육 만족도 (종합)	전공 교육과정 차원 만족도	전공교원 차원 만족도	교양 교육과정 차원 만족도	교양 교원 차원 만족도	교육환경 차원 만족도	단과대학 행정서비스 차원 만족도
전체 평균점수	(16,875)	3.71	3.71	3.77	3.70	3.70	3.67	3.69
물리교육과	(70)	4.32	4.35	4.41	4.29	4.30	4.29	4.29
생물교육과	(76)	4.30	4.29	4.32	4.30	4.26	4.30	4.35
지구과학교육과	(70)	4.18	4.29	4.31	4.14	4.20	4.09	4.07
화학학과(한국화전공)	(50)	4.14	4.16	4.17	4.19	4.20	4.05	4.09
수학교육과	(98)	4.14	4.11	4.27	4.13	4.12	4.13	4.09
작업치료학과	(140)	4.12	4.16	4.20	4.05	4.06	4.15	4.10
특수교육과	(108)	4.10	4.17	4.22	4.04	4.10	4.00	4.05
군사학과	(187)	4.08	4.02	4.10	4.09	4.10	4.09	4.09
식품영양학과	(201)	4.04	4.08	4.15	4.04	3.99	3.99	3.96
치의예과	(180)	3.99	4.04	3.98	3.94	3.97	3.98	4.03
교육학과	(87)	3.97	3.99	4.16	3.91	3.81	4.03	3.93
스포츠산업학과	(89)	3.96	3.98	4.07	3.97	3.92	3.94	3.89
경찰행정학과	(208)	3.95	4.02	4.08	3.96	3.89	3.86	3.88
일본어과	(204)	3.94	3.97	3.95	3.92	3.95	3.90	3.94
화학교육과	(72)	3.85	3.78	3.91	3.83	3.88	3.86	3.84
생명화학고분자공학과	(440)	3.83	3.80	3.87	3.83	3.86	3.79	3.83
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	(364)	3.83	3.85	3.86	3.79	3.84	3.81	3.82
융접 · 접합과학공학과	(62)	3.81	3.86	3.86	3.78	3.84	3.77	3.77
영어교육과	(128)	3.81	3.88	3.96	3.75	3.71	3.80	3.78
미술학과(시각문화큐레이터전공)	(48)	3.81	3.79	4.06	3.81	3.82	3.67	3.72
한문학과	(77)	3.81	3.83	3.99	3.79	3.82	3.71	3.70
스페인어과	(131)	3.81	3.77	3.92	3.80	3.83	3.82	3.71
시각디자인학과	(137)	3.81	3.78	3.91	3.77	3.83	3.76	3.78
태권도학과	(156)	3.80	3.76	3.80	3.84	3.86	3.78	3.77
수학과	(158)	3.80	3.77	3.87	3.73	3.88	3.78	3.74
선박해양공학과	(160)	3.79	3.73	3.86	3.82	3.81	3.73	3.77
간호학과	(341)	3.78	3.80	3.83	3.84	3.78	3.74	3.72
러시아어과	(101)	3.78	3.79	3.90	3.80	3.77	3.66	3.77
원자력공학과	(206)	3.78	3.78	3.81	3.77	3.81	3.74	3.76
토목공학과	(258)	3.78	3.79	3.79	3.81	3.80	3.71	3.77
전기공학과	(395)	3.77	3.79	3.79	3.80	3.76	3.75	3.75
환경공학과	(227)	3.77	3.78	3.86	3.75	3.75	3.74	3.76
문예창작학과	(121)	3.76	4.02	4.07	3.67	3.68	3.54	3.61
언어치료학과	(107)	3.76	3.78	3.90	3.77	3.71	3.68	3.74
체육학과	(466)	3.76	3.76	3.79	3.75	3.73	3.74	3.79
상담심리학과	(144)	3.75	3.82	3.95	3.67	3.68	3.69	3.69
에너지자원공학과	(152)	3.75	3.71	3.81	3.78	3.73	3.74	3.73
화학학과(서양화전공)	(88)	3.72	3.78	3.82	3.70	3.74	3.66	3.62
재료공학과	(299)	3.72	3.71	3.80	3.73	3.71	3.68	3.67
기계공학과	(626)	3.71	3.68	3.72	3.70	3.72	3.71	3.74

※ 종합 평균점수는 조선대학교 교육만족도 15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이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점수가 같아 보여도 순위는 다를 수 있음

언어교육원 가을2학기 개설강좌 안내

- **수강기간** _ 2017년 11월 6일 ~ 12월 26일 (7주 과정) / ~ 12월 29일 (8주 과정)
- **문의사항** _ ☎(062)230-6675/6676, FAX:(062)234-6769
- **인터넷접수** _ <http://www.chosun.ac.kr/lei>

■ 접수방법

- ① 방문접수 : 조선대학교 국제관 4층 언어교육지원팀 (주중 09:00~20:30) ☎ 062)230-6675~6
- ② 인터넷 접수 : <http://www.chosun.ac.kr/lei>

■ 결제방법

- ① 카드결제 : 방문 시에만 가능
- ② 입금계좌 : 광주은행 004-107-498225 (예금주 :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 입금 시에는 반드시 수강자 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 폐강 및 환불

- 등록인원이 개설 가능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 폐강 (3~5일 이내 개별공지)
- 2017. 11. 06.(월)까지 : 수강료 전액 환불 - 2017. 11. 07. ~ 10.(금) : 수강료의 80% 환불
- 2017. 11. 11.(토) ~ : **환불 불가**
- ※ 개강일 이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별도의 차감 및 보장 없음.
- ※ 개강일이 위와 상이한 경우에는 개강일 당일 : 100% 환불, 개강일로부터 4일 : 80% 환불, 그 이후에는 환불 불가

★ 환불 시 유의사항 ★

- ※ 일반인일 경우 본인 이름의 통장사본과 본인 신분증 필요
- ※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은 학생증 연결계좌(광주은행)로 입금 (졸업생 제외)
- ※ 입금자 또는 환불액 수령인과 수강자가 다를 경우, 관계를 증명할 서류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or 의료보험증, 입금자명 통장 사본, 환불 신청서)
- ※ 모든 환불은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수강자와 환불신청인이 다를 경우 환불 불가

English Conversation				
★ Level Test ★				
홈페이지(http://www.chosun.ac.kr/lei)에 별도 공지 예정 (신규 수강자 1단계/초급 이상 단계 수강을 원할 시 레벨테스트 필수)				
* 수준별 영어회화 수강료 - 140,000원(일반인)/112,000원(재학생) (7주)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1	01 07:50~08:40	Kelly Kim	Lab M	
	02 09:00~09:50	Alex		
	03 17:00~17:50	Doh Byungsun		
	04 18:00~18:50	Joel		
2	01 07:50~08:40	Proinseas	Lab L	
	02 09:00~09:50	Ronald		
	03 18:00~18:50	Ian		
3	01 07:50~08:40	Thomas Kim	Lab K	
	02 11:00~11:50	Stuart Waller		
	03 17:00~17:50	Matthew French		
	04 18:00~18:50	Cory		
4	01 07:50~08:40	Duyen	Lab E	
	02 09:00~09:50	Rachel		
	03 18:00~18:50	David Magee		
	04 19:00~19:50	Ian		
5	01 07:50~08:40	Erin Stewart	Lab D	
	02 11:00~11:50	Murdock		
	03 17:00~17:50	Darrell		
	04 19:00~19:50	Cory		
Free Talking	01 07:50~08:40	Hallie	Lab C	
	02 18:00~18:50	Sproule		

* 영어회화 Intensive Course

수강료 - 120,000원(일반인) / 96,000원(재학생) (7주)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초급	01 월/수 10:00~11:50	Jessica Turnbull	Lab A	
	02 화/목 10:00~11:50	Erin Stewart		
	03 화/목 15:00~16:50	Arthur		
중급	01 월/수 10:00~11:50	Derek	Lab B	
	02 화/목 10:00~11:50	Nathaniel		
	03 화/목 15:00~16:50	Erin Kim		
고급	01 월/수 10:00~11:50	Faith	Lab C	
	02 화/목 10:00~11:50	Rob Smith		
	03 화/목 15:00~16:50	Doh Reme		

[1:1 영어 회화]

(4주 12회) 수강료 - 500,000원(일반인/재학생)

수업시간	7:50부터 19:00사이 한 시간!
강사 및 강의실	강좌등록이 완료된 후 알려 드립니다.

- 4주 내 한 회 추가 시 42,000원
- 자세한 문의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FUN & FUN English

* Reading & Discussion : Short Stories

수강료 - 120,000원(일반인) / 96,000원(재학생) (7주)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Reading&Discussion: Short Stories	월, 수 13:00~15:00	David Miller	Lab K	
	화, 목 12:00~14:00			

*** Debating and Public Speaking**

수강료 - 120,000원(일반인) / 96,000원(재학생) (7주)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Debating and Public Speaking	화, 목 09:00~10:50	Duyen	Lab K

(Improving ability to presentation and debate.)

*** Free talking and writing**

수강료 - 120,000원(일반인) / 96,000원(재학생) (7주)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Free talking and writing	화, 목 10:00~11:30	Jonathan Bowman	Lab I

*** Discussing the News**

수강료 - 120,000원(일반인) / 96,000원(재학생) (7주)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Discussing the News	화, 목 15:00~16:50	Stephen	Lab E

(It is good for intermediate and advanced students. Reading news article and talk about vocabulary and news story.)

CNN & Writing

*** CNN 뉴스청취**

(CNN News Listening and Discussion)

수강료 - 140,000원(일반인) / 112,000원(재학생) (7주)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CNN	매일 17:00~17:50	David Magee	3303

*** Sentence Skills**

수강료 - 120,000원(일반인) / 96,000원(재학생) (7주)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Sentence Skills	화, 목 09:00~10:50	Murdock	Lab D

(It is suitable for students who have not experienced writing in English. Improving the ability to write sentences correctly using basic grammar.)

TOEIC ◆ OPIc ◆ TOEIC Speaking

*** 김윤식 TOEIC**

수강료 - 200,000원 (8주)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신토익 750 단기완성반	매일 07:30~08:40	김윤식	3101
교재 - ETS 토익단기공략 750+/ ybm시사			

*** 김안나 TOEIC**

수강료 - 200,000원 (8주)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초급	월, 수	18:00~20:20	김안나	2108
중급+실전	화, 목	18:00~20:20		
교재 - 자체 제작 교재				

★ 스테디 : 18:00~18:30

*** 김수정 OPIc - OPIc을 JOB아라!**

수강료 - 150,000원 (8주)

강좌명	시간	강의실
공식으로 배우는 오목달 IM1 → IH	월 08:00~09:50	멀티어학 교육실 (3207-2)
	화, 수 08:00~08:50	
	월, 수 16:00~17:50	

★ 수업 전후 말하기 연습으로 Level UP UP!
요일 및 시간 조율 가능! 교차 수강 가능!

*** 레나 TOEIC Speaking**

수강료 - 180,000원 (4주)

매달 개강 (11월 / 12월 과정 : 4주 단위로 운영) ▶ 11월 6일 개강 ▶ 12월 개강일은 추후 안내			
--	--	--	--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토익스피킹	월, 수, 금 10:30~12:10	레나	3207

★ 스테디 : 수업 후 1시간

제2외국어

중국어

*** 임지영 - 중국어 회화**

수강료 - 120,000원(일반인) / 108,000원(재학생) (7주)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입문	화, 목 15:05~16:20	임지영	Lab H
초급	화, 목 16:30~17:45		

*** 장웨이 - 중국어 회화**

수강료 - 120,000원(일반인) / 108,000원(재학생) (7주)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입문	화, 목 13:00~14:20	장웨이	Lab H
고급	화, 목 10:00~11:20		

일본어

*** 문지현 - 일본어 회화**

수강료 - 120,000원 / 108,000원(재학생) (7주)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초급1	월, 수 18:00~19:30	문지현	3308
초급2	월, 수 19:30~21:00		

스페인어

*** 스페인어 회화**

수강료 - 80,000원 (7주)

강좌명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스페인어 회화	입문	월, 수 17:00~17:50	Ronald	3304
	중급	월, 수 18:00~18:50		

프랑스어

*** 프랑스어 회화**

수강료 - 80,000원 (7주)

강좌명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프랑스어 회화	A1	월, 수 17:00~17:50	Jeremie Eyssette	3305

*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독일어

*** 신원경 독일어**

수강료 - 80,000원 (7주)

강좌명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독일어 회화	A1-1	화, 목 17:00~17:50	신원경	Lab I
	A1-2	월, 수 17:00~17:50		
	A2-1	화, 목 18:00~18:50		
	A2-2 (독일어능력 시험 대비)	월, 수 17:00~17:50	Reinhold Rauh	Lab G
	B1 (독일어능력 시험 대비)	금 15:30~17:10		

* 독일어 수업 단계는 유럽 연합 외국어 공통기준(GER)에 따른 분류입니다.

김별하나(생명화학고분자공학과 1년)

연구시설·장비 활용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연구시설·장비 활용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장비활용종합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용하게 활용된 사례발굴을 위해 실시되었다.

공모전은 연구자와 연구시설·장비 관련자, 관련 학과의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모주제는 ▲연구시설·장비 활용사례 ▲연구시설·장비 활용 및 관리노하우, 연구 성공 사례, 공동 활용 사례 등 ▲ZEUS장비활용종합포털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 ▲그 외 연구시설·장비 활용을 통해 경험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 ▲제시된 내용 이외에도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다양한 내용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수기’와 ‘UCC’ 두 분야로 접수를 받아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했다. 시상식은 9월 28일 진행되었다.

박귀중(항공우주공학과 2년)

2017년 제1회 공군사관학교 미래 항공우주무기체계 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항공우주공학과 우주기술융합연구실(지도교수 오현웅) 소속 박귀중(2학년) 학생이 공군사관학교와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제1회 미래 항공우주 무기체계 학술대회’에서 우수상(공군사관학교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미래 항공우주 무기체계 학술대회는 첨단기술이 ‘항공우주 무기체계와 미래 전쟁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관련 전공 학부생들이 수행중인 연구내용으로 발표 경연을 했다. 대회는 전국에서 1차 예선을 통과한 대학생 16개 팀을 4개의 분과로 구성하여 분과별 발표평가를 통해 각 분과 별 최우수상 1팀(공군참모총장상), 우수상 1팀(공군사관학교장상) 및 장려상 1팀(공군사관학교장상)을 선정하였다.

박귀중 학생의 수상논문인 ‘인공위성의 고효율 열제어 구현을 위한 액체금속형 가변 전도율 방열판에 관한 연구’는 뛰어난 열적특성으로 인해 냉각물질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액체금속에 주목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공위성 열제어를 목적으로 가변 전도율 방열판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유효성을 해석적으로 검증한 논문이다.

제안된 가변 전도율 방열판은 두 개의 저장소 사이에서 액체금속이 이동함에 따라 인공위성 방열판과 임무장비 사이의 열전도율을 조절함으로써 저온환경에서 임무장비가 작동하지 않을 때 온도유지를 위한 히터의 작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고효율의 열제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논문은 인공위성 열제어 분야에서의 학문적 기여도와 창의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13일 공군사관학교 안중근 홀에서 거행되었다.

2017 캔위성 경연대회 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장관상 수상 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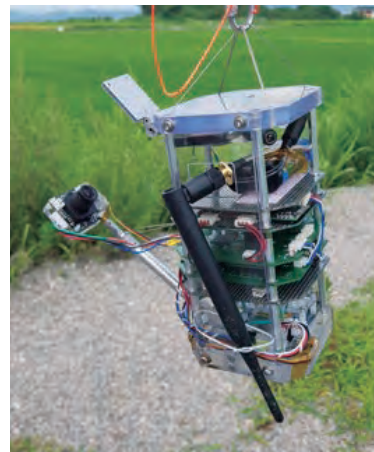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우주기술융합연구실(지도교수 오현웅) 소속 김수현(3년), 박재현(2년) 학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KAIST 인공위성 연구소가 주관한 '제6회 2017 캔위성 체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캔위성 'HA+RCS Cansat (High Agility and Remote Control Camera System Can-Satellite)'은 모터 고속 구동 직후, 카메라에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영상품질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수동진동감쇠기인 동흡진기(Tuned Mass Damper, TMD)가 장착된 고기동 안정화 카메라 시스템을 적용하고, TMD 적용 및 미적용에 따라 획득된 사진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영상품질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부가적으로 지상에서의 조이스틱 명령에 따라 각도가 변화하는 원격 카메라를 이용하여 캔위성 자체의 비행중 실시간 영상 획득을 실시하였다.

위성 임무를 모사하는 캔위성 경연을 통해 인공위성 체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위성 기술 대중화를 위해 2012년도부터 열리고 있는 캔위성 경연대회는 참가팀이 자체 제작한 교육용 모사위성(CanSat)을 수백 미터 상공으로 쏘아 올린 뒤 하강할 때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대회에는 대학부 15개 팀, 고교부 38개 팀이 참가해 1차 평가(5월)와 2차 평가(6월), 캔위성 발사(8월), 최종평가(8월)를 거쳐 각 부문 최우수상 1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우수상 2팀(KAIST 총장상), 장려상 2팀(항공우주연구원장상)을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9월 14일 정부과천중합청사에서 거행되었다. 각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 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우주선진국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조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우주기술융합연구실 소속 학부생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2016년 캔위성 경연대회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계시스템 미래자동차공학부 학생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최 ‘2017년 큐브위성 경연대회’ 최종 선정



56

조선대학교 기계시스템 미래자동차공학부 (지도교수 박설현, 이성준)와 연세대학교 (지도교수 박준수) 학생으로 구성된 ‘KMSL’ 연합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최한 ‘2017년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큐브위성 경연대회는 우수한 우주인력 양성과 우주기술 저변 확대를 목표로 대학(원)생들에게 위성시스템의 설계와 제작, 시험, 발사 등 우주시스템 개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우주 선진국들도 개최하고 있다.

조선대와 연세대 연합팀 ‘KMSL’(Korea Micro Gravity Science Lab) 팀은 우주환경에서의 화염의 전파/소멸 현상분석과 고품별레의 생존 및 행동 변화 연구할 계획으로, 큐브위성 제작비(1억 7천만 원)와 2019년 하반기 발사 시 발사 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대학일자리센터 개소식

“내 일(Job)을 터치(touch)하자!” 원스톱 고용 서비스 제공

조선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앙도서관 1층에 개설하고 개소식을 8월 30일(수) 오후 3시 개최했다.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층에 삶의 질 향상과 적극적인 취업촉진의 의미를 담아 “내 일(Job)을 터치(touch)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출발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오는 2022년 2월까지 5년간 연간 6억 원씩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아 청년들의 다양한 진로지도와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에 분산되어 있는 취업·창업지원 기능을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학업에 바쁜 학생들이 취·창업 정보를 직접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 주고, 정부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앞으로 △학년별·직무별 1:1 맞춤형 상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해외취업 지원서비스 △정부지원 청년 정책 사업 운영(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인턴제, 고용디딤돌,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등) △광주광역시 및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기업의 인력, 훈련 수요에 따른 청년정책 지원 등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 해소에 나선다.

대학의 취·창업 Gateway인 대학일자리센터에는 취업 전문 컨설턴트 6명이 상주하여 저학년은 진로 문제, 교과 편성 등 단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학년 및 졸업 미취업자는 취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담한다. 특히, 조선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학생과 지역 청년들이 수시로 찾아와 고민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진로지도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인프라 구축, 해외취업 지원, 청년고용정책 홍보, 창업지원 및 졸업생 사후관리 DB구축 등을 토대로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062)608-5162



■ 2017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 참여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9월 14일에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광주권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컨소시엄 기관인 국제커리어센터 주관으로 개최한 올해 박람회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동주최하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약 7000여 명의 시민과 취업준비생 등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직업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카드관’ 운영을 지원했다. 또한 ‘현장 매칭관’을 직접 운영해 직무탐색과 함께 해당 기업에 적합한 인재상인지 사전 상담을 거쳐 구인·구직자 간 현장매칭을 하고, 이력서·면접클리닉을 비롯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1 컨설팅을 실시했다.

■ 과학문화교육사업단 주최 2017 취업 컨설팅 및 박람회 참여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9월 21일 자연과학대학 1층에서 조선대학교 과학문화교육사업단이 주최한 “2017 취업 컨설팅 및 박람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진로취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과학문화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기관인 과학문화교육사업단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내일(My Job)이 있는 내일(Tomorrow)’이라는 테마로 최근 채용동향과 NCS기반 취업전략, 나를 돋보이게 하는 색의 컬러진단 등 학생들의 진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 고민을 빼다(대동제 기간 이동 상담부스 운영)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2017년도 조선대학교 가을 축제 기간인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운동장에서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 부스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고민을 빼다”라는 타이틀로 저학년에게는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고학년에게는 취업상담뿐만 아니라, 최근 채용트렌드에 맞춘 블라인드 채용 안내 및 취업지원 가이드를 제시하여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니즈에 맞춘 상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청년들이 취업의 문턱을 넘는 데 힘을 덜어주는 청년고용정책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유무, 제도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게 하였으며, 그중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의 세부사항을 안내로 개인의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 목표 설정부터 능력증진 및 집중 취업 알선까지 1:1 전문상담이 이루어짐을 알려서 학생들 스스로가 취업의지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 맞춤형 청년채용박람회 참여

조선대학교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9월 27일 송원대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한 “맞춤형 청년 채용 박람회”에서 17년 지역기업-청년교류활성화하고자 지역 우수기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선별하여 지역 기업과 청년들(고교생,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한 채용 박람회를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조선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직접적인 부스 운영으로 전문가와 1:1 개별 맞춤상담을 통해 취업준비생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및 취업 연계 가이드 제시와 함께 구직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안내 및 청년고용정책 제도를 홍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주최 “취·창업 토크콘서트” 참여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10월 12일 광주대 호심관에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고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대학교가 후원한 취·창업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진로상담부스 및 진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용감하니까 청춘이다”라는 주제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인식을 고찰하여 해결점을 찾고, 꿈과 스토리를 통한 문화적 소통 접근 및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로써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지역대학생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따라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유쾌한 배우 박철민, 광고천재 보해 마케팅 본부장 이민규, 연매출 100억 타르타르 대표 강호동 등이 참여하여 관련 토크가 진행되었다.

■ “진로 잡(job)고(go)! 체험의 날” 행사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10월 12일 강진 성전 중·고등학교에서 ‘진로 잡(Job)고(Go)! 체험의 날’ 행사에서 진로상담부스 및 진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고, 지역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전남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업카드를 이용해 동기부여 및 직업탐색을 실시하는 직업카드관 ▲지문을 활용해 적성 찾기를 돕는 지문검사관 ▲다트 돌리기 이벤트를 통한 선물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임광남 동문 산수(80세) 기념 시집 발간



임광남 동문이 산수(傘壽) 기념으로 한국문인협회 문효치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소나무 꽃집”이란 시집이 월간문학출판부에서 발간되었다. 임광남 동문은 화갑(60세)의 기념으로 모교 대학원에서 약학박사학위를 취득한바 있으며 희수(70세)에는 문학예술 시부문으로 등단 하더니 이번 산수(80세)에는 “소나무 꽃집”을 그의 시집의 표제로 한 제5부 총66편의 주옥같은 시를 묶어 한권의 시집을 발간하였다.

특히 제2부의 표제가 된“이른 봄별 아래 빨래 너는 아내의 모습에서 어머니를 만난다”로 시작하여 “이승의 봄별 따라 하늘을 오르면 그리운 어머니 꿈같이 만나려나”로 마무리 한 “어머니”란 시는 2015년 제3회 서울시약사회 한독문학상 우수상으로 수상하였으며 “땡그러니 감 하나 까치밥으로 매달려 있는 늦가을”로 시작되는 “늦가을 비”는 2016년 제3회 이가탄 한국약사 문학상 시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80이란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가슴 뭉클한 작품을 낼 수 있다니! “영감의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고 희망의 전파를 끊임없이 잡는 한 여든의 노인도 청춘으로 살 수 있네”라고 한 새무얼 올먼의 “청춘”의 시 한 구절이 실감 나게 가슴에 와 닿는다.

임광남

전남 장흥 출신으로 광주고(1956년 졸업), 조선대학교 약대·동 대학원(약학박사)을 졸업하였다. 동아제약과 동아유리 감사를 지냈으며 약국을 경영하였다. 「문학예술」시 부문으로 등단하여 현재 한국문인협회·한국문화예술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제3회 서울시 약사회 한독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 제3회 이가탄 한국약사 문학상 시대상을 수상하였다.

삼호·무등산 의료재단, 조선대병원에 병원발전기금 기부

삼호·무등산 의료재단(이사장 장호직)은 8월 21일 10층 회의실에서 조선대병원 발전기금 기부식을 가졌다.

삼호·무등산 의료재단의 장호직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의료발전 및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조선대병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1,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장호직 이사장이 운영하는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일반 요양병원과 다르게 암 특화 재활 치료병원으로 2012년 개원하여 전담 및 광주지역의 암환자 및 암 후속치료를 요하는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상홍 병원장은 “현재 우리 조선대병원은 IBM사의 왓슨 포온콜로지를 호남권 최초로 도입하여 암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치료법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



고 있으며, 이번 발전기금을 통해 지역 내 암 환자 치료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발전기금을 기부해 준 장호직 이사장 및 무등산 의료재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2017년 8월 신규 임용장 수여식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22일 10층 회의실에서 8월 신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용식에는 이상홍 병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각 부서 팀장들이 참석하여 신규 직원을 환영하고, 각자의 다짐을 들어보며 앞으로의 병원생활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여식에는 신규 17명이 임용되었다.

○ 신규 임용자(8월 1일) - 17명

▲ 간호 12명 (김현정, 신승민, 황민화, 박진희, 오은빈, 김지영, 최민정, 정연경, 이현영, 이유정, 이수화, 남소연)

▲ 시설 1명 (정동열)



▲ 임상병리 4명 (이민정, 이혜림, 최새롬, 이경현)

조선대병원,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23일 오후 2시 제404차 민방위의 날 관련하여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에서는 14시에 울린 공습경보에 맞춰 이뤄졌으며, 20여분간 차량통제 및 주민(환자 및 직원)대피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어진 교육에서는 방독면의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제세동기 사용방법 숙지 등 위급상황에서의 생존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매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맞춰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교육받고



훈련하여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 '사랑의 다과 나눔행사' 가져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8월 24일 오전에 생명나눔 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 스님)와 함께 내원객들에게 전통차와 커피를 제공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관 1층 로비에서 이뤄진 이번 행사는, 수년간 이어온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에서 주관하였으며, 환자, 보호자 및 직원들에게 손수 전통차를 끓여 나눠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깐이나마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다.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란다”며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기원의 메시지를 보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의 웃음과 미



소를 보며 힘을 낼 수 있었다.

선아트 갤러리, 조선대병원서 환자쾌유 기원 전시회 개최

한국 미술협회 소속 작가들과 미술대학 출신 작가들로 구성된 '선아트 갤러리'는 8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 신관1층에서 유화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행사는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에게 미술 관람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병원생활로 지쳐 있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해 진행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선아트 갤러리(대표 최진원) 소속 회원들이 직접 그린 유화 작품 40여점이 전시되었으며, 환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 역시도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이며, 잠시



나마 정신적인 피로감을 덜어낼 수 있었다.

조선대병원, 협력 약국 간의 상생의 장 마련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28일 오후 6시 하중현홀에서 병원 주변 협력약국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생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 정현철 약사회장과 박춘배, 유동국 부회장등 광주시 약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조선대병원 주변 협력약국 약국장, 의료진 및 약제부 관계자를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약 4시간에 걸쳐 이뤄진 간담회에서는 현재 의약품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약국에서 느끼는 애로점을 허심탄회하게 병원 관계자와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조선대병원 약제부의 임상파트 업무 소개를 시작으로 ▲ 지역 약국의 현안 ▲ 약물이상반응모니터링 위원회 활동 ▲ 약국과 병원간의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 시간으로 구성하여 생산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지역의약품



안전센터장 권용은 교수(알레르기내과)의 의약품 안전관리 및 사용에 대해 협력 약국 간의 상생을 도모하였고, 이상 약물보고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해 협력 약국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조선대병원,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병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선대병원 고문변호사인 오두일 변호사를 초빙해 영화 속 사례를 활용해 알기 쉽고 재미있는 교육으로 이뤄졌으며,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숙지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건전한 성가치관을 함양해 존중과 배려가 있는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을 이수한 한 전공의는 “이번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과 성윤리 의식 정립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밝은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선대병원, 지역협력병원과 현판식 가져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29일 광주광역시내 협력병원과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현판식에는 하남성심병원(병원장 김석빈), 운암한국병원(병원장 윤인식), 상무병원(병원장 이경엽)과 현판식을 거행하였으며, 찾아가는 현판식을 통해 해당 병원의 시설 및 특성화센터를 함께 둘러보고, 지역협력 병원과 긴밀한 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현판식에서는 지역 병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 현재 의료체계의 개선점 ▲ 상생발전 방안 ▲ 진료협력센터와 해당병원간의 적절한 환자이뢰 시스템 등의 개선점과 건의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구성하여 생산적인 의견



을 나눌 수 있었다.

2017년 9월 신규 임용장 수여식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5일 10층 회의실에서 9월 보직 임용 및 신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용식에는 이상홍 병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각 부서 팀장들이 참석하여 신규 직원을 환영하고, 새로 보직에 임용된 직원의 다짐을 들어보며 앞으로의 병원생활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여식에는 보직 1명, 신규 13명이 각각 임용되었다.

○ 보직 임용자(9월 1일) - 1명 ▲ 의무기록팀장 길부성

○ 신규 임용자(9월 1일) - 13명 ▲ 약무 1명 (정근숙)

▲ 간호 12명 (최민선, 전다민, 이은지, 김세미, 손원호, 한



재희, 조문영, 김해연, 봉아름, 한승연, 조은비, 지유진

환자의 안전과 쾌유를 위한 병문안 문화, 다 같이 동참해요

조선대병원, 병문안 개선을 위해 스크린 도어 설치
평일 오후 2시간, 주말 오전·오후 각각 2시간으로 가능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제2의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전달 말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면회 시간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 부처 및 전국의 병원은 원내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었고, 이에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동일한 시간에만 병문안이 가능하도록 공통기준(2015.11 보건복지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 역시 정부의 병문안 문화 개선 노력(2017.02 보건복지부, 감염관리·의료질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여 무분별한 병문안 문화를 개선함은 물론 환자들의 안정과 빠른 쾌유를 도모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운영 방침으로는, 입원창구에서 발급받은 보호자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 1인만 병동 출입문에 부착된 바코드 리더기에 출입증 인식 후, 반드시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정상적으로 입실이 가능하다. 이는 ‘메르스’ 유행 당시, 무분별한 방문 면회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역학 조사의 어려움을 겪은 바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면회시간은 평일(1회) 18:00~20:00이고, 주말(2회)은 10:00~12:00, 18:00~20:00 까지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병동은 기존에 운영되던 시간과 동일하게 면회객을 제한하게 된다.

이상홍 병원장은 “시행 초기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병문안 문화가 바뀌게 되면 감염의 확산은 물론 쾌적한 환경으로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문객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조선대병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초청세미나 개최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9월 8일 하중현홀에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세의료원 국제협력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미래전략실장을 맡아 대한민국 의료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윤영설 교수와, 현재 서울 제이에스병원장으로 있는 송준섭 원장을 초청하여 이뤄졌다.

기회를 잡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특성화된 아이템으로 해당 국가별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함을 역설한 자리에서, 특히 윤영설 교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증프로그램 및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송준섭 원장은 과거 2002년 월드컵 당시, 출기세포를 이용해 히딩크 감독의 무릎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국내 의료수준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며 세미나에 모인 많은 교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인공지능(AI) 시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환자 중심의 치료에 한 발짝 더 앞장서겠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높은 활용가치를 가지며 향후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는 현재의 보건산업의 영역을 규정하는 경계를 허물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산업의 경계가 견고했던 보건산업에서 이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등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인류가 경험했던 그간의 산업혁명은 △제1차산업혁명(1800년대) - 기계에 의한 생산시대 △제2차산업혁명(1900년대)-대량 생산체계 구축 △제3차산업혁명(1900년대 중,후반)-컴

퓨터,인터넷의 발달을 통한 정보 기술 시대를 거쳐 불과 반세기도 안돼 △제4차산업혁명(2000년도)-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지능화된 사회로 발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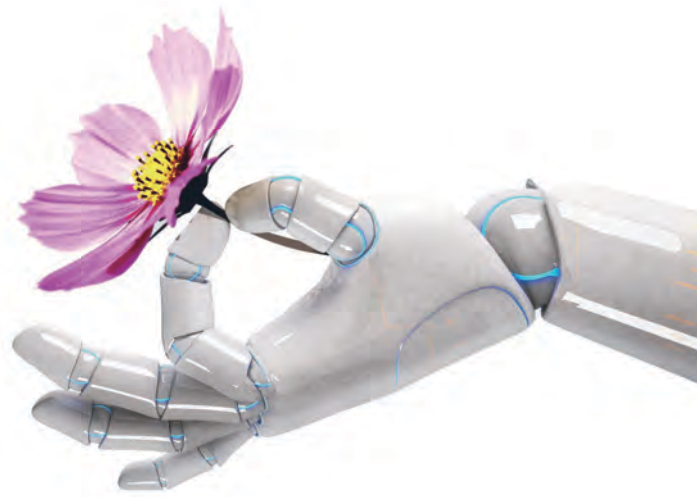
제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분야 중, 인공지능을 이용해 암치료를 돕는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이하 왓슨)’가 화두다. 조선대 병원은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지역 포함 최초로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계약 체결하고, 9월말부터 정상 가동한다.

□ 조선대병원에서 도입하는 ‘왓슨’이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 현재의 제4차 산업혁명의 대세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의료 및 보건산업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건강이 중요해지다 보니,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꼽히고 있는 것 같다. 이에 전국에서는 가천의대 길병원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하여 암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조선대병원 역시 좀 더 나은 암치료를 위해 호남최초로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하게 되었다.

□ 그렇다면 이러한 왓슨 포 온콜로지는 과연 무엇이며 도입 배경과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 IBM 왓슨 포 온콜로지(이하 왓슨)는 한 마디로 정의하면 암환자 치료를 위한 암환자치료지원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왓슨 포 온콜로지는 환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 예를 들어 나이, 몸무게 등 기본정보 및 현재 몸상태, 과거 치료 정보, 영상 검사 결과, 혈액검사 결과등을 입력하고, 간단한 옵션을 지정하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암센터인, 뉴욕의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MSKCC)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치료방법과 환자 관리 권고안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홍수 속에서 환자에게 맞는 치료방법을 제시해 주는 일종의 조연자 역할을 수행하는 왓슨 포 온콜로지의 대답을 근거로 하여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 암센터의 다학제팀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학 근거 자료들을 활용해서 의사에게 정확한 치료법을 권고해주는 ‘근거 중심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 ‘왓슨’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의사의 역할이 다시 재조명 될 것이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이 환자를 보는데 있어서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해준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왓슨은 인간과 경쟁이 아닌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정확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환자와의 직접대면, 인공지능 왓슨에 질문, 대담도출, 환자와의 정보교류 등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는 ‘의사’의 역할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왓슨과의 공존은 결국, 의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진 것이다.

□ 결국 치료법에 대해 의사의 의견과, 왓슨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 왓슨과 의사 소견이 충돌한다면, 과연 환자는 어느 쪽을 택할까?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판단이 일치한다. 다른 경우는 동서양의 차이, 사용가능한 약제, 보험기준등의 국가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혹여나 의견이 다르더라도, 환자에게 어떤 치료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등의 강제적인 태도보다는 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 여전히 환자의 치료법에 대해 판단은 결국 의사의 몫이다.

▶ 결국 왓슨 포 온콜로지예 흔히 말하는 의사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다학제팀의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공지능을 도입하느냐 안하느냐는 핵심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나가면서 환자와 의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왓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중, 치료법에 대한 근거가 되는 빅데이터가 동양인이 아닌 서양인에 맞춰져 있다는 의견이 많다.

▶ 맞는 말이다. 하지만 모든 암종의 예후와 치료가 인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한국인 및 동양인에 맞는 빅데이터의 축적이 중요한 건 사실이다. 왓슨은 현재,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위암, 폐암, 전립선암’의 8개 분야에 대해 진행 중이며, 앞으로 다양한 암종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따라서 왓슨을 필두로, 인공지능의 영역이 확대되어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인공지능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말고 있는 과가 중앙혈액내과다. 해당과의 교수로서, 기존에 비해 왓슨을 이용했을 시 드는 느낌은 어떤가?

▶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의사도 간호사도 컴퓨터도 그렇다. 다만 부단히 노력하여 오류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의료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을 때 많은 자괴감이 들게 된다. 왓슨 역시 현재 계속 발전하고 있다. 많은 정보속에서 왓슨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환자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지역 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소위 메이저 병원이라 일컫는 현대아산, 서울삼성, 서울대, 세브란스 등의 병원에서도 많은 매체를 통해 소개된 이름난 의사를 찾아가지만, 여러 달 동안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 하지만, 암환자분들의 심리가 당연히 그럴 것이다. 당장 왓슨포온콜로지를 도입했다고 하여 이러한 상황이 즉각 개선되리라 믿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적/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이분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면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다.

조선대병원,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의 실시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19일(화)~20일(수) 2일간, 하종현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교직원들이 갖춰야 할 의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란지교SNC컨설팅 정세웅 이사를 초빙하여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강의는 병원에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개념과 개인정보의 관리 실태, 정보 관리 방법, 처벌 사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후에는 그동안 병원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



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조선대병원,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개소식 가져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9월 21일, 조선대병원 본관 2층에서 광주광역시 박병호 부시장,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 등 유관기관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 10월에 조선대병원이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되어 8억 1천만 원의 설치비를 포함, 3년간 총 26억원의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 중

최대 규모로 교육실, 회의실, 운동프로그램 개발실, 영양프로그램 개발실, 정보도서관, 상담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광주는 물론 전남권 지역 주민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치매의 예방/조기진단/관리 등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상홍 병원장은 “광주지역에는 16,000여 명의 치매환자들과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5만여 명의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예방과 교육 및 최선의 치료를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고, 광역치매센터장 추일한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지속 가능한 치매관리 서비스로 치매로부터 고통 받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겠다”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또한, 조선대병원은 전국 최초로 치매전문병동을 개소하여 다중 CCTV 모니터링시스템, 안전 바닥과 벽면, 지남력 회복을 위한 자연채광 시스템 등을 갖춰 운영해오고 있다.



인공지능기반정밀의료암센터, 9월 25일 진료 개소식

광주·전남 및 전북 권역 최초 'IBM 왓슨포온콜로지' 활용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인공지능, 암환자에게 최적의 처방할 수 있게 의사 도와...
서울까지 가는 관행 줄일 것”



인공지능을 활용한 암 진료가 25일,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에서 광주·전남 및 전북 권역 최초로 시작된다.

지난 6월 말, 조선대병원은 IBM사와 '왓슨 포 온콜로지'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스템 구축과 Training 기간을 거친 후, 25일부터 지역 및 국내의 암환자들에게 최적의 암 치료를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날 조선대병원 본관 1층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강동완 조선대학교총장, 이상홍 조선대병원장, 박송미 한국 IBM상무 등 많은 관계자 및 환자와 보호자들께서 참관하여 지역 내 첫 도입한 IBM 왓슨 포 온콜로지에 대한 기대감을 엿 볼 수 있었다.

병원 본관 1층에 자리 잡은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 암센터(이하 인공지능 암센터)'는 왓슨 포 온콜로지를 위한 전문 시스템 구축과 종양내과, 종양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의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란 보고서를 통해 의료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조선대병원이 이번에 광주·전남 및 전북권역에서 최초로 도입한 왓슨 포 온콜로지는 300개 이상의 의학 학술지와 200개 이상의 의학교과서를 포함해 1,500만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의료정보를 입력하여 학습하였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공지능기반정밀의료암센터장 박치영 교수(종양혈액내과)는 “과거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학제 팀과 왓슨 포 온콜로지의 적절한 적용으로 우리 지역은 물론 국내의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상홍 병원장은 “심평원에서 실시한 적정성 평가결과, '위, 폐, 대장, 유방' 항목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수도권 대학병원 임상교수 출신의 암 의료진과 인공지능 왓슨을 바탕으로 암환자들이 서울까지 힘들게 다니는 어려움을 타개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 의과대학 15회 졸업동기회, 조선대병원에 발전기금 전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15회 졸업동기회(회장 반영수)에서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에 발전기금 일천만 원을 전달했다.

9월 26일 조선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강동완 총장 및 이상홍 병원장 등 7명이 모인 자리에서 의과대학 15회 졸업동기회의 3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대학교에 일천오백만원, 조선대병원에 일천만원을 전달했다.

반영수 졸업동기회장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으로서 모교와 병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대단히 기쁘다.” 며 “지역 인재양성 중추기관인 조선대학교와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조선대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척추 건강 강좌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홍) 신경외과에서는 “척추건강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건강 강좌를 28일, 신관 2층 하중현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강좌는 ‘척추건강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건강한 척추를 지키기 위한 방안 등 척추 질환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 허리디스크란 무엇인가? △ 허리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 △ 허리디스크의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강좌에는 척추에 관심이 많은 환자 및 보호자들과 관련 의료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건강한 척추를 위한 열띤 강좌가 되었다.



조선대병원 외과 김권천교수, 김유석교수 ‘유방학 교과서’ 공저



김권천



김유석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 외과의 김권천·김유석교수는 최근 유방 관련 진료에 지침이 될 ‘유방학 교과서(4판)’를 집필했다고 밝혔다.

이번 2017년에 발행된 유방학 저서는 국내 130여 명의 유방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저술하였으며, 유방 질환 및 유방암의 진료에 지침이 될 만한 방대한 내용을 약 1,050페이지에 걸쳐 담았다.

김권천 교수와 김유석 교수는 특히 이 저서에서 유방암 중 특히 암으로 분류되는 ‘염상종양과 비상피세포 유방암’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김권천 교수는 “이번에 출간된 교과서는 유방암 분야의 방대한 지견이 수록됐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에게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대치과병원, 제1회 “광주시 Active Aging City 조성사업 연계 치과산업 활성화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포럼 개최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이 8월 22일(화) 지하 세미나실에서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 광주광역시 전략사업본부 박정환 국장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광주시 Active Aging City 조성사업 연계 치과산업 활성화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초고령화 시대로의 진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사회적 조류에 맞춰 “액티브 실버와 스마트 시티”와 함께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신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융합하여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이번 포럼을 개최하였다.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은 축사를 통해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의 수준 높은 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치과 기술의 접점을 모색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광주 Active Aging City 조성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전략사업본부 박정환 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우리 시 치과산업과 「Active Aging City 조성사업 및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잘 연계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킨다면 4차 산업혁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수관 병원장은 “100세 시대와 4차 혁명시대로의 변화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의료산업의 발전 기회로 인식하여 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발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와 해마다 채용 규모를 늘릴 것 기대합니다.”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치의학 연구원 설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포럼을 준비하겠다.”라며 포럼의 포부를 밝혔다.

조선대치과병원, 2017년도 임상교수 하계 워크숍 성료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이 2017년도 임상교수 하계 워크숍을 8월 18일(금) 14:00부터 19일(토) 11:00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김수관 병원장을 비롯한 임상교수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관광도시인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손미경 진료부장의 진행으로 정재현 교수의 고별강의와 치과병원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주제(▲진료 활성화 방안 ▲환자중심의 진료환경 조성 ▲연구의 수월성 확보 방안 ▲효율적인 의료 인력관리 방안)를 가지고 조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순서로 꾸며졌다.

김수관 병원장은 임소식에서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여 주신 임상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드린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이번 분임토의 통해 근본적인 개혁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선도적인 치과병원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제9차 국제 치과 임플란트 연수회 성료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의료관광지원센터(센터장 손미경)가 주최하고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 조선대학교 구강생물학연구소, 인도네시아 D+ Dental Esthetic Clinic, 목포 예담치과가 주관하였으며 오스템 임플란트, 광주 의료관광협의회, 광주관광 컨벤션 뷰로, 맑은 피부과, 청연한방병원이 함께 참여한 제9차 국제 치과 임플란트 연수회가 지난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국제 치과 연수회는 2010년 국제 교육 및 교류를 위해 발족된 G10 포럼(대표 강동완 총장)의 해외의료진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200여명의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등을 포함한 아시아 10개국의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심미치과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실시해 왔다.

이번 연수회는 인도네시아 치과의사 10명이 참여하였으



며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 교수진들이 강의와 실습, 환자 시연을 통해 대학병원의 선진 의료 기술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연수 프로그램은 의료관광의 일환으로 연수 교육 외에, 한방 의료 및 피부 관리, 한옥 및 한식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료 체험을 제공하여 연수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17년 한중 교류 학술연구회 임플란트 임상 세미나 성료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과 치과RIC가 주최하는 '2017년 한중 교류 학술연구회 임플란트 임상 세미나'를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임플란트 임상 세미나에는 중국 치과의사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수관 병원장의 주도하에 임플란트 수술 및 임플란트 보철 치료와 관련된 교수들(오지수 교수, 유지원 교수, 이경제 교수)이 Live Surgery와 강의로 수준 높은 치의학 교육 및 임상기술을 중국 치과의사들에 전수하였다.

이번 임플란트 임상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치과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준 높은 임플란트 시술을 Live Surgery로 보게 돼 매우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진



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면서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의 우수성과 친절함을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금연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이 8월 14일(월) 치과병원 3층 다산실에서 광주지역 내 흡연자를 위한 금연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광주금연지원센터(센터장 임동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 및 금연캠프(1박2일, 4박5일)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양 기관에 의뢰 및 연계하여 흡연자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금연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라이프온과 업무협약 체결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이 8월 30일(수) 치과 병원 3층 다산실에서 구강보건 증진 및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하여 천연치약 엑소덴 제조사인 (주)라이프온(대표 이우승)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학술교류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며, 또한 사회공헌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인적, 물적, 학술적인 모든 부문에서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수관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다양한 정보교류로 구강보건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며 '(주)라이프온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진료봉사과 나눔사랑 실천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앞서 지역사회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구강위생관리용품을 조선대학교 노인복지센터(센터장 신혜숙)에 기증을 하였다.

(사)광주국제협력단과 업무협약 체결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이 9월 28일(목) 치과 병원 3층 다산실에서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하여 (사)광주국제협력단(이사장 최동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외 의료봉사, 긴급재난구호, 기타 국내활동에서 상호 협력하여 사회공헌활동 및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사)광주국제협력단 최동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의 우수한 치과 의료진과 함께 국내외 의료봉사 및 긴급재난구호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 며 '광주의 오월 정신을 지구촌 곳곳에 확산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지역 생체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이 10월 11일(수)에 광주지역 대학병원(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와 광주지역 생체의료 3D융합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5개 기관은 광주 지역 생체의료 3D융합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해 ▲환자 맞춤형 의료용품 제작 등을 위한 관련 장비 및 시설 공동 활용 ▲생체의료 융합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컨설팅 ▲생체의료분야 3D콘텐츠(VR/AR) 및 3D프린팅, 고부가가치 의료 소재 등 공동기술 개발 ▲생체의료 관련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창업지원 ▲생체의료 관련 신사업 발굴 및 공동기획 ▲기술정보교류



및 인적교류 등 기타 협력사항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동티모르 이주 노동자에게 새 희망을...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이 8월 16일(수) 동티모르 이주 노동자를 위해 치과 진료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치료를 받은 환자는 동티모르 이주 노동자(루빌라 이/25세)로 금년 4월에 입국하여 어업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구강으로 연결된 농이 있는 근단주의농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비아도 신부, 광주 이주민센터(센터장 박병철), 조선대학교병원 장경식 교수,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의료관광지원센터(센터장 손미경), 조선대학교병원 카톨릭회, 조선대학교병원 백악 봉사대의 뜻과 희망이 모여 이루어졌다.

이번 수술을 집도한 문성용 교수(구강악안면외과)는 “이번 수술은 치근단주위에 낭종을 제거하고 치조골 결손부위에 골이식을 동반한 쉽지 않은 수술이었다며, 일주일 정도면 건강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관 병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온 이주 노동자가 100만을 넘어서고 있는데 의료진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치료비 부담으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며 ‘이주 노동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를 잘 펼쳐 나가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화순읍 어르신을 위해 진료봉사 실시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이 8월 25일 화순군(군수 구충곤)에서 무료 진료봉사를 펼쳤다.

이날 진료봉사는 김수관 병원장을 비롯한 총 10명으로 구성된 진료봉사단이 화순읍사무소 앞 광장에서 화순읍 어르신 및 다문화가족 등 300명을 대상으로 구강상담, 치석제거, 보철상담 등 무료 진료봉사를 실시하였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우리 화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무료 치과 봉사활동을 해 준 조선대치과병원측과 의료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며 “조선대치과병원과 화순군은 가장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항상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어 더욱 정이 간다”고



말했다.

김수관 조선대치과병원장은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화순군을 앞으로 자주 찾아 뵙도록 하겠으며, 화순지역 토산품을 원재료로 한 치약 및 입안 세정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데 화순군과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의료봉사단은 이동치과진료버스를 이용하여 한 달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에게 충치치료, 스케링, 틀니 및 보철검사,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치과치료 등 직접 찾아가는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곱 번째 미얀마 해외진료봉사 다녀와...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해외진료봉사단(단장 문성용 교수)은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미얀마 양곤 치과대학에서 구순구개열 및 구강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수술 진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진료봉사에는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조선대학교 치과 대학 교육문화재단, 목포과학대학교 치위생학과와 주관으로 이가편한치과, 목포 예뵤치과, ㈜메디퍼슨의 후원으로 이루어 졌으며 구각완악면외과 문석용 교수와 강신규 전공의(인



틴)참여하여 구순구개열 환자 9명과 구강압 환자 1명에게 새로운 웃음을 찾아 주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150명의 양곤 주민에게 구강검진, 당일 근관 치료, 레진치료, 발치, TBI, 치석제거 등의 치과진료를 실시하였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지난 2011년 8월 미얀마 양곤 치과대학과 MOU를 체결한 이후 일곱 번째 교류를 겸한 진료봉사를 진행했다.

조선폐치과병원, 미안마 제1회 구강암 수술 핸드온 교육 성료

조선대학교교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문성용 교수가 8월 26일, 27일 양일간 미얀마 만델레이 대학에서 첫 번째로 미얀마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구강암과 악안면 미세재건 수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미얀마 구강악안면외과 의사 22명을 대상으로 구강암 수술방법을 비롯하여 악안면재건술에 필요한 피판 채취술, 미세혈관 수술 방법에 대해 강의와 더불어 사체를 통한 수술 교육, 그리고 Live Surgery 시연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미안마 치과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평소에 보기 힘든 수준 높은 구강암 수술과 미세재건 수술을 Live Surgery로 보게 돼 매우 인상적이었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수회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이번 교육을 진행한 문성용 교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미안



마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들에게 구강암 및 미세재건 수술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며 '다음 교육에서는 좀 더 알찬 스케줄로 더 많은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 치과병원(CUDH) 의료봉사단 2017년 상반기 결과 보고회 가져

‘지역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CUDH) 의료봉사단(단장 손미경 교수) 2017년 상반기 결과 보고회를 8월 29일(화) 지하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의료봉사단은 올 1월 16일에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을 비롯한 광주·전남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동구노인복지관(3월 10일)을 시작으로 2017년 상반기 동안 21회 978명의 진료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상반기 결과 보고회에는 진료봉사를 하면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서로 나누며 다음 하반기 봉사활동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은 2012년부터 지역민을 위해 한달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에게 이동치과진료버스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인문학 강의 개최

‘문학으로 보는 인간의 삶이란...’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이 9월 5일(화) 3층 다산실에서 신형철 교수(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문학 평론가)를 모시고 치과병원 교직원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가졌다.

이번 인문학 강의는 “문학으로 보는 인간의 삶”라는 주제로 기존의 강연 위주의 강의를 아닌 Kunio Kato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작은 큐브로 만든 집)의 상영과 필립 라킨 시



인의 <나날들 / Days>이라는 시를 같이 낭독하며 삶의 의미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김수관 병원장은 ‘이번 인문학 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이 지친 생활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인문학적 인성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가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학생들을 위한 치과병원 진로체험 실시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이 8월 23일(수)에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병원 진로체험을 실시하였다. 광주 서석중학교 학생 31명이 참가한 이번 체험행사에서는 각 진료과 소개 및 치과와 관련한 다양한 직업소개, 병원 라운딩, 질의응답시간 순으로 진행하였다.

김수관 병원장은 “이번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치과 관련 직업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꿈과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지난 6월 20일에 광주 서부교육지



원청 산하 농촌 소규모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조선대치과병원, 제2회 인문학 강의 개최

‘타인과의 만남’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이 10월 10일(화) 3층 다산실에서 설현영 교수(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철학과)를 모시고 치과병원 교직원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가졌다.

이번 인문학 강의는 「타인과의 만남」라는 주제로 “인간들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맑스(Karl Marx; 1818~1883)의 말을 인용하여 타인과의 만남 즉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수관 병원장은 ‘이번 인문학 교육을 통해 직장생활에서 직장 동료, 환자 등을 대면하면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인문학적 인성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가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치주과 이경훈(R1)임상연구 우수상 수상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이경훈(레지던트1년)전공의가 최근 개최된 제 57회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임상연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경훈 전공의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The-K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회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Radiogenic and histomorphometric evaluation of

xenogenic graft and allogenic graft in sinus augmentation via lateral approach”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임상연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 틀니 헐거움과 통증. 임플란트로 해결하세요 -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철과 손미경 교수

▶ 고령화 사회에서 구강기능의 회복을 통한 삶의 질에 관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정책의 변화가 수반되면서 치과치료에 대한 인식과 치료범위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치아우식 및 치아결손으로 손상된 구강형태를 회복하는 형태 수복치료 또는 잇몸질환이나 구내염증 치료와 같은 질환 치료에 국한되었던 치과치료의 양상이 구강 기능의 회복과 예방치료로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치아가 전부 상실된 고령환자에서 ‘원래 불편하다’라는 전제하에 완전틀니를 만들어 사용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틀니를 사용하더라도 얼굴의 심미성이나 씹는 기능을 최대한 치아가 있었던 상태와 유사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환자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치과 치료방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치료기술이 소개되고 있다.

▶ ‘틀니’의 통증과 불편감

전체 치아를 상실한 환자가 치과에 내원한 경우,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완전틀니를 제작하는 것이다.

완전틀니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환자들에서 식사를 돕는 치아 보철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틀니가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치아가 하나도 없으므로 그저 잇몸 위에 얹혀 있는 것과 같다.

틀니가 통증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이유는 입안에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랫니가 모두 빠진 경우에는 말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 혀의 움직임에 따라 틀니가 들어 올려지면서 불편감과 더불어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마찰에 의해 잇몸에 상처를 내게 되어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윗니가 빠진 경우에서도 틀니가 입천장 전체를 덮으므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침이나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심지어는 음식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헐거운 경우에는 틀니가 입천장에 붙어있지 않으므로 말하거나 씹을 때 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쉽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용을 들여 틀니를 만들어도 대부분 빼놓고 지내거나 심지어는 여러 치과를 전전하며 안 아프고 잘 빠지지 않는 틀니를 만들어 달라고 방문하는 노인 환자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그렇다면 완전 틀니를 덜 아프고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졌을 때 남아있는 뼈에 인공치근을 식립해 상실된 치아를 회복시켜 주는 인공치아이식을 말한다.

최근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치아가 한두 개 빠진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완전 틀니에서 틀니가 잘 빠지지 않고 덜 아프도록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충분한 뼈가 있어야 하고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다.

노인 환자들의 경우 치아가 상실된 시간이 오래되면서 뼈가 많이 흡수되어 있으므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는 뼈이식 등의 부가적인 시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모든 치아가 상실된 환자에게 빠진 치아 수만큼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 고가이므로 전체를 식립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완전 틀니를 사용하기는 불편하지만 빠진 치아를 모두 임플란트로 수복하기 어려운 경우, 더 편안하고 덜 아픈 틀니를 만드는 방법이 '임플란트 유지 의치'이다.

임플란트 유지의치는 틀니를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 뼈가 많은 부위에 최소한의 수만큼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똑딱이 단추나 자석, 또는 연결막대 형태의 유지형태를 부여하여 틀니가 잘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완전틀니가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형태의 임플란트 유지 완전틀니 치료이다. 최근에는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2개의 임플란트가 보형이 되면서 식립된 임플란트는 치아형태의 고정성 보철물로 연결하고 결손된 부분만을 부분틀니로 만드는 임플란트 유지 부분틀니 방법도 치료방법중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임플란트 유지의치는 환자의 임플란트 식립위치나 교합관계 등을 고려하여 치료형태가 임플란트 유지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어떤 치료인지에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가 치과의료보험이 적용되기도 하고 또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치료전에 치과의사와의 충분한 치료계획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유지의치를 위해서는 아래턱에는 2~4개, 위턱에는 4~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해 틀니와 연결하여 틀니의 탈락을 방지하고 입안에서 움직임을 줄여서 더 안정적으로 틀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체 시술기간은 뼈가 치유되는 기간을 거친 후 바뀐 잇몸에 맞춰 틀니를 제작하고 임플란트와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4~8개월 정도의 총 시술기간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장점을 갖는 임플란트 유지 의치를 고려하는 경우는 뼈가 남아있는 양이나 위치, 잇몸의 상태, 환자의 전신건강 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된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치의와의 상의를 통해 환자 본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와 구강관리가 요구된다.

모든 치아를 상실하고 완전 틀니의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환자에서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식립해 제작한 임플란트 유지 의치는 점점 고령화돼 가는 사회에서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과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

온세시큐리티(주) 강광민 이사 모교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무인경비 전문회사 온세시큐리티(주) 강광민 이사가 8월 25일 오전 9시 조선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강동완 총장에게 CU Again 7만2천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발전기금은 지난 8월 31일 오후 6시 30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제평화비전 선포식 및 UN합창단 공연’에 쓰일 예정이다.

강동완 총장은 인사말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민의 클라우드 펀딩으로 설립된 조선대학교가 올해 개교 71주년을 맞아 지역민에게 감사의 의미로 UN합창단

공연을 추진하게 됐고, 이 공연이 조선대학교를 글로벌 대학으로서 가치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발전기금을 전달한 강광민 이사는 “CU Again 7만2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특히 민주·인권·평화 도시인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음악을 통해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해온 UN합창단이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탬이 되고자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라면서 “UN합창단 창단 70주년을 맞아 호남에서 최초로 열리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모교 조선대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조선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최첨단 방법시스템을 이용한 무인경비 전문회사인 온세시큐리티(주)에 몸담고 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통일부 교육위원, 광주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광산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순이(삼성생명 명예사업부장) 조선대학교 동문, 발전기금 2천만 원 전달



조선대학교(강동완 총장)는 ‘학교 동문인 임순이 삼성생명 명예사업부장이 학교발전을 위해 써 달라고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임순이 명예사업부장은 9월 21일 대학 본관 총장실에서 강동완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하면서 “대학 후배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순이 명예사업부장은 또한 “모교인 조선대학교와 각별한 인연이 있으며 오늘날 자신이 있기까지 학교 구성원들의 도움이 많았다. 이제는 모교에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 기부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임순이 명예사업부장은 지난 2008년과 2011년에도 각각 일천만 원과 1천2백만 원을 기부했고, 이번엔 2천만 원을 기부해 지금까지 총 4천2백만 원을 조선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 2017월 8월 11일 ~ 2017년 10월 10일 |

성명	소속	약정 금액	개인별 누계
(유)대신치과재료상사-박병기		500,000원	500,000원
(주)강림씨.에스.피		14,076,000원	14,076,000원
(주)금구약품		500,000원	500,000원
(주)동성메디칼-문희주		500,000원	1,220,000원
(주)이레테크		1,000,000원	1,000,000원
(주)흥성정밀-임일성		2,639,760원	5,124,240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장학회		3,000,000원	11,000,000원
광주은행		20,000,000원	12,217,975,652원
김낙영(광주영덴탈)		500,000원	500,000원
김명수	치의학전문대학원	1,800,000원	5,438,400원
김보현		100,000원	100,000원
김복자		120,000원	120,000원
김수관	치의학전문대학원	200,000원	340,034,170원
김영용		1,200,000원	1,200,000원
나승진		100,000원	100,000원
남도문화재단		30,000,000원	30,000,000원
대호의료기		100,000원	100,000원
무등산의료재단, 무등산생태요양병원(장호직)		10,000,000원	10,000,000원
무안종합병원-강대웅		3,000,000원	3,000,000원
무안종합병원-박준근		4,000,000원	4,000,000원
무안종합병원-임은광		3,000,000원	3,000,000원
바이오알파		300,000원	300,000원
박근호	전주고려병원	10,000,000원	10,660,000원
박영진		120,000원	120,000원
박진석		100,000원	100,000원
박찬균		150,000원	150,000원
박찬환		150,000원	150,000원
박혜숙		120,000원	120,000원
샤인덴탈(김영수)		500,000원	500,000원
안설우		120,000원	120,000원
안영준	사범대학	1,000,000원	3,943,600원
안영택		120,000원	120,000원
안유수보(보금치과기공소)		2,000,000원	2,240,000원
오덕균		100,000원	100,000원
온세시큐리티(주)-강광민		10,000,000원	10,000,000원

성명	소속	약정 금액	개인별 누계
우광희		120,000원	120,000원
유은실		1,000,000원	1,700,000원
이동희		100,000원	100,000원
이상돈		120,000원	120,000원
이 정		370,000원	370,000원
이종균	서울시니어스타워(주)	11,992,200원	311,992,200원
이준엽		120,000원	120,000원
이 찬		370,000원	370,000원
이형석		60,000원	60,000원
이호원		120,000원	120,000원
이홍재		120,000원	120,000원
임성철	의과대학15회졸업동기회	15,000,000원	15,000,000원
임순이	삼성생명 명인	12,000,000원	34,000,000원
장해춘	자연과학대학	3,000,000원	10,585,600원
정석주		120,000원	120,000원
정향훈		120,000원	120,000원
정 훈		120,000원	120,000원
조권현		360,000원	360,000원
조대의과대학		4,000,000원	4,000,000원
조선대학교총동창회		1,000,000원	41,000,000원
진인삼		120,000원	120,000원
최후균	약학대학	1,200,000원	12,554,400원
하충식	한마음병원	7,500,000원	565,500,000원
한국상사		500,000원	500,000원
합 계		180,647,960원	13,676,784,262원

